

## 자양라이프아카데미가 나의 인생(삶)에 미친 영향?

### [ 강미선 - 중국문화학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난 더 이상 우수인재가 아닌 “바른인재”로 거듭나고 싶어졌다. 자양을 하기 전, 난 경쟁에 찌든 평범한 한국 대학생이었다. 무언가에 꼭꼭 눌러 답답하면서도 냉소적인 강미선. 따지고 재며 비관적이었던 나에게, 다행히 졸업하기 전에,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공부란 늘 주어진 것에 대한 성취, 그걸 꾸역꾸역 해내는 나였다.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인지조차 “무감각 해져버린 나”에게 자양은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능동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꾸준함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각자의 색깔을 가진 좋은 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실이다. 한마디로 자양을 통해 단순한 **인문학적 지식을 넘어 삶에 대한 태도와 사랑을** 가지고 떠난다.

### [Elective-아침: 다짐과 강연]

이번 주에는 어떤 연사가 올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독서토론과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좋았지만 나에게 강연은 자양을 오는 가장 큰 재미였다. 아침9시에 헬레벌떡 오는 것이 힘들었지만 일찍 온 만큼 매주 2명의 연사강연을 들을 수 있어 힘듦을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강연 시작 전, **자양라이프 아카데미의 다짐**의 외침을 통해 난 **말의 힘**을 느꼈다. 처음에는 왜 매주 할까 솔직히 외치기 귀찮았다. 하지만 중반을 넘어갈 수록 자양이 추구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4가지 키워드 “지행일치”, “이기심뿐만 아닌 이타심”, “유연성”, “내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련할 수 있었다.

자양이 끝나갈 즈음, 지금까지 온 연사들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연사마다 각기 다른 스토리와 메시지를 주지만 바로,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과 꾸준함(GRIT)**”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통통 튀는 강연 스타일을 보여주신 사진작가 선생님, 20대 청년 사업가 전종하 연사님, 한의사에서 더부스 브로잉을 만드신 김희윤 대표님, 그리고 **청춘은 바로 지금!**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신 박재갑 원장님, 박인구 부회장님, 마지막 장인수 OB부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그들의 관록이 아닌 생기와 에너지를 바로 앞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다. 피로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감과 열정을 다시 이식 받는 느낌이었다. 자양 大學 수업 때 배웠던 어린 시절 잃어버린 **德**을 다시 밝히려는 “**明明德**”을 배운 Elective였다.

### [Module-오후: 독서토론, 덕목과 3분스피치]

본격적인 모듈시간 전, “**바른인재에 대한 3분 스피치**” 그리고 “**덕목**”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은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떨림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같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면 더 설득력 있을까? 스피치에 대한 준비, 할 때, 하고 나서의 피드백 과정을 지속적으로 코칭받고 친구들의 모습도 같이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스피치를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었고 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쓰고 넘어간 것보다 마음속에 더 깊이 박혀있는 느낌이다. 김은자선생님이 “이제는 말을 할

때 급하게 자기생각을 쏟아내려 하지않고 여유를 가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을 때, 정말 기뻐다. 2년 전,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강미선 떨지 말고 말해!”라는 말을 들었던 내가 자양을 통해 발전한 것 같아 뿌듯했다.

모듈시간은 **책 읽기와 토론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책과 밥 무료제공이 자양을 지원하게 된 계기 중 솔직히 나에게 큰 부분을 차지했다. **책에 대한 편식**도 고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설이나 서양인문학책을 별로 접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양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찾아서 읽을 것 같지 않을 책들을 읽고 생각해볼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독후감으로 작성 할 수 있었다. 내가 몰랐던 신화적 내용, 디스토피아,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동기들과 토론도 즐거웠다. 누구 하나 눈치 볼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해볼 수 있는 바로 모듈시간! 서로를 통해서 타인의 의견 수용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배웠다.

### [마치며]

자양을 통해 무엇보다 **사람과 사랑**을 느꼈다. **감사일기**를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면모로 변화해 나갔다. 대인관계에 미숙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직도 힘들다. 하지만 자양을 통해서 자기불안에 대한 족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자신을 도닥이고 타인에 대한 포용력을 키웠다고 느낀다. 가족이란 글쓰기시간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던 나의 이야기를 표현 할 수 있었다. 동기들과 서로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위로 받았고 봉사와 조모임 역시 **“함께”라는 힘**을 알려주었다.

자양의 첫 한 달은 기존에 익숙했던 교육과는 달라 힘들고 낯설었다. 솔직히 중도포기할까도 생각했다. 장거리 달리기를 때, 첫 3km heating-up이 힘들듯이 말이다. 하지만 초반 3km가 지나면 숨이 트이고 편해진다. 중간에 멈췄다 달리면 계속 달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자양을 수료한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수료 이후, 자양을 통해 다시 느꼈던 내 자신의 살아있음을 잊지 않고 내 꿈을 향해 향해할 것이다.

자양에서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를 일깨워 준다. 그리고 좋은 동기들, 1기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모두 모델링학습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양을 만들고 지원해주시는 김재철 회장님, case study로 경영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주신 윤세웅 교장선생님, 어렵고 지루할 것 같았던 철학과 신화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수업하실까 감탄했던 유성환 담임선생님, 전화로 인생에 대한 코칭상담을 해주시고 “예술과 함께”에 대해 알려주신 윤여순 선생님, 누구보다 꼼꼼히 작성한 독후감들을 읽어주시고 함께 토론해주신 김은자선생님, 과학에 대한 거부감을 풀어주시고 가끔 엉뚱한 농담이 귀여우신 권희민 선생님, 자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지만 힘든 내색하나 없이 친근하게 다가와주신 전창호 대리님, 자양에 대해 알려준 1기 김선진 오빠와 같은 조 선배로서 종종 와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신 1기 조정호 선배님, 그리고 우리 2기 자양수료생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 김이레 - 큐레이터학 ]

### 사랑으로 뿌려진 작은 씨앗

수료 에세이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켜고 그 앞에 앉았는데 울컥, 하고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뿔어져 나온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골라 집기가 어렵다.

스치듯 본 글에 마음이 뺏겨 다급하게 신청한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였다. 내가 그 글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책을 무료로 준다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담은 김재철 회장의 글을 보고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

*서로 돕고 협동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력이나마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보고저 한다.*

*설령 당장은 그 성과가 미미할 지라도 후일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Life academy를 개설 운영코저 한다.*

*그 취지에 동참하신 분이 많으면 우리 교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많은 분의 동참이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왜 대기업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처음에 김재철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의문을 가진 적은 없다. 그 글을 읽었을 때 마음 깊이 공감했을 뿐이다. 참 신기하게도 작년 12월 그 무렵, [미술관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전공과목과 [철학과 현실]이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말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김재철 회장의 글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질문이 없어진 교실, 암기 위주의 교육,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 부족, 이기심만을 기르게 되는 환경, 실력과 인성이 별개인 사회. 모두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그러나 변화는 없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때 다가온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는 운명 같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그 결과가 예상되지 않을지라도, 씨앗을 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정말 함께 하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지금 작은 씨앗의 일부가 되어 수료 에세이를 쓰고 있다. 자립에 강의를 하러 오셨던 많은 분들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가장 놓고 싶은 날인 토요일을 이곳에서 보내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그저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무료로 받는 수혜자였을 뿐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이곳에 토요일 시간을 내어 강의를 하러 오신 그 분들과,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이끌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다. 그렇기에 선생님들께서 ‘자양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놀라운 기회의 수

혜자인 나를 참여자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립을 하면서 훌륭한 강의와 책,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고,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선생님들의 마음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생님들의 교육을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마음, 앞으로 꾸준히 나아갈 것이라는 열정과 믿음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많이 불러봤지만 그 가사에 진심을 담아 부른 적은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하면서 스승의 은혜를 깊이 느꼈다. 자립에 계신 선생님 6분이 보여주신 그 마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있기에 분명히, 씨앗은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반드시 바뀔 것이다. 선생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단초가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정말 어렸다. 지금도 어리다. 내 안에는 이타심보다 이기심이 더 크다. 나는 배를 타고 가면서 수평선과 도착지점을 바라보지 못했고 뱃머리 앞 칠랑대는 파도만을 보았다. 당장 눈 앞에 닥친 폭풍우만을 보았다. 이런 나의 고개를 들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게 해준 분은 선생님들이었다. 고집세고 어린 나의 고개를 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왜 달콤한 것을 주지 않으시냐고, 왜 쉬운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택하시냐고 때를 부리는 나를 꾸짖지 않고, 심지어 때를 부리는 것조차 '이만큼이나 컸구나, 자랑스럽다'라고 품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립을 하면서 만난 두 개의 조, 그리고 "동참" 봉사단에서 떠난 썩썩캠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일전에 좌우명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정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하고 말고는 내 의지에 달린 것이지 상대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는 아니야'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 말은 C.S. 루이스의 책에서 읽었던 말인데 지금에 와서야 전심으로 이해가 된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 마지막 독후감, 궤도에서 이탈한 자들

자립2기의 수업 마지막날, 받은 책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에세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을 쓴 최진석 교수님의 책이기에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읽기 시작했다.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은 평소 동양철학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 준 책이었다.

명(名)가(可)명(名)비(非)상(常)명(名)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읽고 머리가 땡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은 책의 초입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꿈꾸

는 미래, 좀 더 나아진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이 이 책 전체에 걸쳐 쓰여 있다. 저자는 질문과 대답을 대립적인 한 쌍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전혀 다른 차원의 두 행위로 본다. 질문은 인격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고유한 존재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대답은 '우리' 속에 있어도 가능하지만, 질문은 '우리'로부터 이탈된 독립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은 집단에서 이탈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립의 첫 수업시간에 들었던 강의 제목이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을까?"였다.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바보 같은 질문은 하나도 없다'라고 첫 시간부터 못박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다.

*기존의 정해진 것들이 낯설어지거나 이미 익숙해진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어느 정도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낯섦이나 생소함 등과 같은 감정은 정해진 것들이나 익숙한 것들과 갑자기 분리되는 경험이 생길 때 엄습해오는 불편한 느낌입니다. 이 분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일단 고독해집니다. 익숙함을 공유했던 주변의 연결망과 갑자기 끊어지고, '우리'에서 혼자만 벗어나 '이탈'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략)

*우리는 대개 생각의 결과들을 믿음의 체계로 바꿔서 그것을 신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만 세상과 접촉하는 것이지요. 이때 인간이 상실하는 가장 큰 자질이 바로 '예민함'입니다.*

(중략)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 절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 궁금증이나 호기심도 발동되지 않아 질문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철학은 철학자들이 남긴 지식을 공부하고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철학 이론을 네모 반듯하게 알고 있다고 '철학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삶 자체를 철학적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하고 행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철학을 하는 것이다. 즉,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시선의 높이, 그 방법에 동참하는 능력을 키워서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철학적 사유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독립"이다.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불편해질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독립이다. 세상과의 불화를 자초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철학을 할 수 있다. 저자는 버드문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다.

*사고는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것, 파괴적이고 가공할 만한 것이다. 사고는 특권과 기성 제도와 편안한 습관을 무자비하게 다룬다. 사고는 무정부적이고 법률로 제어할 수 없으며 권위를 중시하지 않고 여러 세계를 거치면서 정교화된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고는 지옥을 들여다보고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고는 인간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에 둘러싸여 있는 희미한 알갱이로 본다. 그러나 사고는 마치 자신이 만물의 영장인 듯이 확고하고 당당*

하게 처신한다. 사고는 거대하고 재빠르고 자유로우며, 세계를 비추는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이다. 예민함과 불편함도 용기다. 독립과 예민함이 역사를 바꾼다. 사람들은 이탈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소한 것에 예민함을 느끼고 그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묵인해 왔던 것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소한 예민함이 역사를 바꾼다. 이 책을 읽으며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시가 있다.

우리는 어디를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못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짹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김중식, 이탈한 자가 문득

꿈은 생래적으로 거칠고 비합리적이며 돌출적이라고 한다. 꿈은 현재의 문법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꿈을 실현할 세상의 문법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자립 2기는 꿈을 꾸다. 우리는 자립에서 배운 사유하는 법으로 세상을 사유할 것이며, 자립에서 배운 이타심으로 서로를 넘어 세상을 품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궤도에서 이탈할 용기를 가지고 캄캄한 하늘에 빛을 뿜고 다시 새로운 궤도를 만들 것이다.

## 출발선에 선 지금, 새로운 문을 열고서

### 어제와 같은 오늘, 콤포트 존에 들어가 있던 날들

"<자유와 공동체의 관계>라니, 꽤 심오한 걸 써야 하네..."

11월 14일 화요일. 나는 텅 빈 강의실에서 푹푹푹 지원서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복학을 했으니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니까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시키니까 과제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미 학교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있으니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사귄 필요성을 못 느꼈고, 제대를 하고 2주만에 복학했으니 무언가를 준비 할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학교 수업에 충실하자'는 이유로 별다른 활동 없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던 스스로의 권태로움이 극에 달해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콤포트 존<comfort zone>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콤포트 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구역입니다. 이 안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실패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미 스스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입대하기까지 2년 반 동안, 전 이 '콤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해 닦치는 대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집-학교-학원-집]만을 전전했던 단조로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 동아리도 해봤고, 학회도 해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 충분했다'고 생각해버렸고 입대를 기점으로 저는 콤포트 존에 들어가게 되었죠.

스스로 염증을 느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였고, 이 곳에서의 배움과 인연들이 제 손을 붙잡고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별들 같은

자양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 같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학생 상관 없이, 각자 사랑하고 있는 세상을 품고 있었고 그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별빛이 쏟아져 내린다'는 표현 그 자체였어요. 꽃, 술, 환경, 미술, 운동, 과학, 요리, 음악, 정치, 경영, 언어... 나와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몸짓 하나하나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 1)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

첫 조였던 <불4조>는 조원 수가4명으로 줄어버린 시점에서 "우리, 불사조처럼 죽지말자!"는, 처량하고 장대한 뜻을 담은 조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학과도, 성향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과의 조합에 가우뿔했지만, 이 이질적인 조합으로 서로의 자양 첫 시작을 최고로 아름답게 이끌어준 조였습니다. 캠프에서 케이스 스터디 1등도 해보고, 대립토론도 해보고, <대학>으로

PPT도 만들어보았습니다. 과학 수업 때는 이과생이 없어 우왕자왕 하기도 했고, 캠프에서는 서로 과제의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몰라서 선생님께 구조요청을 보내기도 했었지요. 모두가 처음이었던 만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일 아련하기도 하고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시간을 함께 보냈거든요.

## 2) 무시무시한 조 이름, 어마어마해진 사람들

두 번째 조인 <삼합회>는 무서운 이름처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모인 조였습니다. 자양의 1/2을 해온 만큼 서로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만큼 모두가 자양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만큼 왔으니 다들 발표하는 것도, 의견을 내는 것도, 토론을 하는 것도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온하면서도 멋진 자양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3) 오로지 우리를 위한 분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각도 많이 했었어요. 저도 하면서 제 자신이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평일 내내 당신들만의 직업을 가지시다가, 아침 9시마다 우리들의 '선생님'으로서 자양라이프아카데미로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왕자왕 할 때에도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셨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른이요, 인생 선배로 말이죠. 어린 아이도 아닌 20살 넘은 대학생들을, 선생님들께서는 하나하나 눈 속에 담아주셨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이분들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 스스로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바른 인재'가 되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 사회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제가 다니는 학교는 특이하게도, 졸업 요건에 봉사활동 시간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봉사활동 하나 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했고, 저도 이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양에서는 봉사활동이 수료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봉사활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거리가 멀었던 '마라톤'에서 행사지원 봉사활동도 해보고, 매일 지나다니던 경의선 철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자양 친구들과 함께 <쑥쑥캠프>의 선생님이 되어 생전 처음 보는 중학생들에게 진로와 감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보기도 했죠. 자양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양의 친구들을 보며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해보지 않은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때 느낀 기분은 굉장히 신묘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 활동들이었고, "그게 당장 너가 취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야?"라는 친구의 질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과 기쁨을 준다.'는 기분이 마음을 울



렁거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다 보면 '중독'이 된다던데 이런 중독이라면, 중독 될 만하지 않을까요?

### 컴포트 존을 넓혀나가기 위해, 다시 출발선으로

*"자양라이프아카데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한국의 청년들이 모인 이 곳에서 인생 선배들의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저는 성공한 삶,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곳에서 배운 '사랑'을 타인과 사회에게도 돌려줌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벌써 까마득해진 2017년의 제가,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지원서에 썼던 글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료 에세이를 쓰는 지금, 이제서야 막 저는 이 말을 실현할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양라이프아카데미'라는 하나의 코스를 완주하고 나니까, 비로소 다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선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 투명하고 맑은 빛이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제가 할 일과 하고 싶어 지는 일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 그리고 세상을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을 열고서 저의 컴포트 존을 계속 넓혀가고자 합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혹은 예전의 나라면 어려워했을 일을 이제는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컴포트 존을 깨부수는 것을 넘어서, 언컴포트(uncomfort)한 곳을 컴포트(comfort)한 곳으로 만들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최상의 자신이 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듯한 울렁이고 두근대고 콩닥거리는 마음을 품고, 저는 지금,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 [ 박소현 - 홍보광고학 ]

수료에세이 제출 안내로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울 때, 나는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입학식 날 받은 자양노트를 펼쳐보았다. 공책을 펼치자 맨 윗줄에는 날짜와 요일, 날씨를 적어 놓았고, 그 아래로는 강연 내용 중 내가 감명받았던 문구를 적어 놓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모듈 시간에 진행되었던 토론의 주제와 그에 대한 선생님과 동기들의 생각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쓰인 많은 글자를 보면서 자양에서 나는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 그 시간이 바꾼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린아이가 너무나 궁금하다는 듯이 끝없이 물어올 때, 처음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대답을 포기한 경험 말이다. 나는 이런 경험 때문에 자양라이프아카데미에 지원했다. 살아오면서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당연한 것들은 늘어갔고, 어떤 문제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구하는 일에는 소홀해졌다. 그런 일에 소홀해지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왜 당연한지도 모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되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었고 나의

무지에 방관하면서 사는 일이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던지는 순수한 질문처럼,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을 찾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자양은 낯설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고 있으면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면 오히려 질문하기 쉽고, 대답하기 수월했을 텐데 보통 자양에서의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했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는 중에도 그 길이 맞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했다. 그래서 어느 날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울었고, 또 남들은 잘 해내는 것 같은 데 나 혼자 못하는 것 같아서 열등감을 느낀 날도, 내 부족한 모습이 싫어 분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그래서 토요일이 다가오면 도망갈까 싶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나 스스로도 이상한 일이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교의 강의실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 등 그 어디에서 해도 낯설게 들릴 것 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사람은 정해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자양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일은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고, 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내가 공공대던 문제의 실마리를 얻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풀지 못한 어렵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함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고 친구는 장난치며 놀리다가도 정성스럽게 답을 찾는 일을 도와주었다. 또 어떤 토요일에는 서툴게 발표를 해도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발표했던 날도 있었고, 이번 여름에는 혼자라면 미뤄두면서 하지 않았을 일도 같이하자고 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하고서는 뿌듯했던 날도 있었다. 이처럼 힘들어도 같이 해주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옆에서 얻어가고 배우는 것들은 더 많아 나는 12월부터 6월 내내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자양에서의 시간이 끝난 지금 생각해보면, 자양에서 보낸 시간은 '왜 살아가면서 묻고 답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양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의심할 때 더 좋은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고 그 과정은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양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랬고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이 그랬다. 나는 지금 자양에서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변곡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뎌야 할 때, 그 걸음에 자양에서 배운 가치들이 담겨있기를 바라면서 수료에세이를 마친다.

토요일마다 20층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는 얼굴들이 반가웠고, 강당 안으로 들어서면 언제나 다정하게 맞이해주는 선생님들이 생각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토요일 아침이 되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 [ 조강선 - 영어학 / 경영학 ]

### *언덕을 오르니 보이는 것들*

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만 해도 제게 자양 라아는 다소 험난해 보이는 오르막이었습니다.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올라선다고 특별한 무언가가 나타날까 하는 의구심이 앞섰습니다. 9개월의 오르막길을 거쳐 그 끝에 올라선 지금 제 눈 앞에 보이는 것은 특별할 것 없이 그저 평범한 언덕입니다.

조금은 허탈한 마음에 고개를 뒤로 돌려보니 제가 올라온 오르막길이 보였습니다. 그 곳에는 무얼 감사해야할지 몰라 당황해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능숙하게 감사나눔을 하고 나아가서 저 스스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제 모습도 있었고, 프로그램을 위해 여기저기 강연을 섭외하시던 선생님들의 노고와 애정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일상고민들까지 공감해주시며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던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심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돌아보니 오르막을 저와 함께해준 동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전공과 취미, 관심사들을 나누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의견을 주고 받고, 프로젝트를 함께해내고, 다 같이 봉사하며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들과 또 프로그램을 벗어나서도 서로 좋은 것들을 선뜻 공유할 수 있는 신뢰가 남아있었습니다. 비록 내성적인 성격을 타고나 이 언덕에 같이 오른 이들 모두에게 제 마음을 전하지는 못 했지만, 하나하나가 제게 직접적으로는 격려와 응원을, 간접적으로는 자극과 깨달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하니, 전에 없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Elective에서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분들의 통찰을 통해 전에 볼 수 없었던 희미한 별들이 새로이 빛나고, Module에서 한 주에 한권씩 책을 읽어내며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그저 빛나는 줄만 알았던 별들이 이제는 어떤 색을 띄는지 더욱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양이라는 언덕위에 올라서니 더욱 넓은 세상의 반짝이는 지식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기존의 지식들을 다채롭거나, 깊은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양은 제가 힘들 때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 버팀목이 되어줬고, 직접 별을 가져다 주는 대신 별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줬으며, 상상력 가득한 눈빛으로 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또 9개월간의 오르막을 통해 전에 없던 습관들이 굳은살 되어 몸에 남아있었습니다. 한 주에 한권씩은 서로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고, 이를 읽으며 들었던 의문들을 기록하여 이에 대해 답을 내리는 과정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동안의 감사나눔을 통해 타인과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에 젖어있지 않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니, 그 마음이 자연스레 제게 되돌아왔습니다. 영화나 맛집 평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의 이슈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습관도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감상하고 느끼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남들에게 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도 서툴렀고, 남들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양을 하며 만난 동기들과 끈임없이 의견을 공유하고, 때로는 논쟁과 토론을 주고 받으며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그 위에는 무언가 달라진 절경이 펼쳐져 있을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풍경이 아니라 이를 오르며 치열하게 고민하며 달라진 제 자신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꿔주진 않지만, 바뀔 인생의 그 첫 단추가 되어준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와 선생님들 그리고 동기들, 모두들 진심으로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 [ 전인아 - 식품영양학 ]

### *'자양을 하기 전, 토요일 아침마다 난 뭘 했더라?'*

자양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 수료 에세이를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매년 생각났던 물음이었다. 이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가 없어서, 수료 에세이를 쓰는 것을 뒤로 미루고, 버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지난 12월의 스케줄러를 열어 보기까지 했다.

상기한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던 이유를, 스케줄러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렇다 할 특별한, 내 기억에 남는, 스스로 뿌듯했던 일을 한 내역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보니,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입학식 주에는 시험공부로 바빴던 때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했던 적이 없었다. '내가 시간을 이렇게 버렸었구나, 차라리 알차게 놀기라도 하지!' 스스로도 그냥 흘러버린 23살의 마지막 12월이 개탄스럽기만 했다.

그래도 나를 알차게 살았겠지, 근거없이 기대한 과거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려고 했다. 그래서 자양을 하며 보낸 9개월은 달랐겠지, 싶어 정리한 책과 그간 써온 파일을 저장해 놓은 폴더를 살펴보았다.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체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활동내역은 독후감이었다. 자양을 하기 이전에도 책은 줄곧 읽어왔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독서 편식이 있어, 정작 난 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독서를 하지는 않았다. 기껏해야 사회과학, 과학 분야에 한정된 독서만 했었고, 그에 따른 생각들만 내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거기에서, 전공에 최적화된 학습법을 찾으려는 것 때문인지, 나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면, 그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며, 계산하는 과정만 반복했고, 이로 인해 막상 그러면 안 되는 책을 읽어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만 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랬던 내가, 9달 동안 인문학, 사회학,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과학, 과학분야의 책을 읽고, 이를 활용한 독후감을 쓰고, 토요일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자양을 하며 받았던 (내가 살던 세상이 깨어지는 듯한) 충격은 많았지만, 그 여러 충격들 중 첫 충격은 책 '그릿'에 대한 자양 동기들의 독후감과, 토론이었다. 나는 '그릿'을 읽을 때만 해도, 책을 스스로 반성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채찍질하는 도구로 이해하였다. 그러니 스스

로 독후감을 써도 늘 반성문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기만 했다. 그러나 동기들은 이를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집단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 날 뿐만 아니라, 같은 책을 읽어도, 저마다 살아온 배경, 습득한 지식, 전공하는 학문의 눈을 빌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여러 동기들의 의견들도 그간 써온 파일을 읽으며 기억났었다. 나는 이들의 독서법에 놀랐고, 감탄했으며, 후에 가서는 그 독서법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첫 한 달 반 가량, 나는 내용을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활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서 책을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독후감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금은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분야의 책을 도전하는 일이 잦아졌다. 자양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스스로 골라 읽었던 책은 롤랑바르트의 'S/Z'였다. 프랑스 인문학의 구조주의부터 해체철학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 하여 집어 들었는데, 차용한 소설에 비해 서평이 어려워 여러 번 곱씹으며 읽고 있다. 의미를 찾기 어려워 인터넷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지식을 얻으려 하고, 이를 구조화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려는 방법의 틀을 자양으로부터 얻은 듯해 기쁜 마음도 있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실라부스의 참고도서까지 클리어하는 것 또한 이번 남은 2018년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케이스 스터디를 하며 복수전공(경영) 강의의 팀플 과제를 좀 더 퀄리티있게 하는 방법을 습득하기도 했고,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보다 달라진 점이 있었다. 또한, 매주 덕목을 쓰며, 스스로 세상을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명료해지고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알차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여러 일렉티브를 들으며, 정신적, 지식적, 이 둘의 조화를 찾는 연결고리까지 얻을 수 있어, 기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커다란 흐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순차적으로 여정했던 모듈은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다. 여기서 느꼈던 충격은, 크게 과학 수업과 모듈이 연결되는 순간(천동설과 지동설), 예술과 모듈이 연결되는 순간, 신기술에 대한 일렉티브와 모듈이 연결되는 순간(AI와 호모데우스)이었다. 예술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는 방법을 배웠기에, 나는 예술에 담긴 당대 사회를 읽어내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런 과정이 내게 '예술은 숨은 그림 찾기'라는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주었다. 과학도 마찬가지였으며, 과학을 과학으로서만 접근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마지막, 신기술과 모듈이 연결되는 순간은, 나에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안겨주었다. 9개월 동안 자양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묶는 모듈이기도 했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에 스스로도 신기했다.

마지막으로, 자양을 하며 발표를 떨지 않고, 자연스레 내 의견을 표현하고, 그 과정을 즐겁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9개월 간 앞에 나가고,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으며 발언한 모든 것들이 시나브로 쌓여 나에게 자신감을 준 것이다. 그러나 마냥 많이 말을 하는 것이었다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발표를 위한 준비와 그 준비를 위해 마련된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 과거의 내가, 그 당시 발표를 하던 내게 동력을 준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약

했을 때도, 발표를 조리 있게 하지 못했을 때도, 그 어떤 비난도 없이 조언과 격려를 서로 보여줬던 동기와 선생님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회복탄력성도 기를 수 없었을 것이다.

수료에세이를 쓰기 위해 돌이켜 본 9개월은 생각 이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매주 쓰던 시간관리계획표는 내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욕심을 주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나 알바조차도 하지 않은 내가, 과외를 선뜻 하고, 최대한 미루려고 했던 영양사 실습을 그냥 하고('Just Do It!' 나이키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그냥 도전했다.) 사회를 배우고, 설렁 서투르게 일해오던, 자책하고 기운 빠져 있지 않은 채 그릿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도 내가 바뀐 점이 아닐까? 또, 과거를 돌이켜보고, 쓸 만한데 놓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 또한 바뀐 점이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일본어를 다시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공부할 의지와 실행력이 생겼다. 그게 내 스스로도 느낀 가시적인 나의 변화이다.

한 마디로, 자양은 내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호기심을 실현할 동력을 안겨주었다. 호기심이 없는 인간은 그 순간 늙는다는 말은, 자양을 하며 내가 뼈저리게 느낀 점이었다. 마지막 자양 수업을 하고 난 다음 날 일본어 시험을 보고, 3주 후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그간 준비한 공부량에 자양의 힘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호기심과 실행력을 자양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교환했던 이타심으로부터 배웠다. 자양을 마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해왔던 요즘 1달 동안 드는 생각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 팀플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복지관에서 했던 봉사, 하고 있는 영양사 실습 등등등... 그 때마다 자양에서 해온 팀 내에서의 행동을 떠올렸고, 배웠던 이타심을 상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양의 사람들이 내게 보여줬던 행동들과 이타심도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긴 9개월. 나는 지난 9개월 간 동기 및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지지와 결속을, 앞으로 나아갈 세상 속에서 보게 될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것이다.

## [ 김선미 - 화학 ]

###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나에게 불어온 바람이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면접 첫 답변 후, 동원산업빌딩에 다시 올 날은 없겠다고 느꼈다. 프로그램 시작 후 매주 책 한 권씩 읽고 토론을 한다는 소리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패널토론 또한 안 걸릴 것이라는 나의 헛된 생각은 연속 세 번 앞으로 나가던 순간 사라졌다. 정말 그만두어야 하구나 생각했다. 책읽기에는 관심도 없고 더욱이 토론, 발표를 싫어했던 나였기 때문이다. 아니다.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을 미래의 나를 생각하니 몹시 부끄러웠다. 이왕 시작한 거 '초기 모습과는 다른, 바뀐 내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하게 됐다.

마음만 먹었을 뿐 다름없는 시간이 흘러 캠프를 떠나게 되었다. 지목받지 않으려 시선을 책상으로 떨어뜨리던 중 인생그래프 발표에 걸렸다. 발표를 유창하게 못하게 된 계기와 경험을 인생의 흐름 따라 말했다. 끝난 뒤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를 떠는 현상도 줄어들고 발전해가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격려해주던 친구, 이렇게 말을 잘 할 줄 몰랐다며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칭

찬과 어깨에 힘을 불어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는 캠프가 끝난 뒤에도 어떠한 부분이 나를 원초적으로부터 긴장하게 만들었는지 더욱 깊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 “세상의 반은 나를 싫어하고 반은 나를 좋아하게 되어있다.”

코칭은 나에게 충격적인 문장을 남겼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압박감에 살았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일 수 밖에 없었다. 딱히 가리는 음식, 싫어하는 것이 없었다. 타인 위주라 내 주관은 애초에 생길 틈이 없었던 것이다. 코칭 이후 나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처음에는 과일쥬스 가게의 모든 메뉴를 하루 하나씩 마셔보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기 위해 10시간 이상 쇼핑하였다. 5개월동안 나에게 맞는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적응이 되다보니 이전 노력이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나를 알아 갈수록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생기고 이어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대학생”

독서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다만 SNS는 중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하는 편이었다. 짧게 요약만 되어있는 SNS와는 다르게 길게 적힌 문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글자 하나 하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앞 뒤 다시 읽으며 꼼꼼히 읽었다. 독서도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외우다시피한 책에 나오는 문장들이 내 생각인 양 뻗고 다녔다. 깔끔하면서도 힘이 있는 문장들을 읽고 입에서 나올 때의 기분은 기쁘다, 뿌듯하다는 말로 형용이 안됐다. 그렇게 책 한, 두 권이 열 권이상이 되더니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도 빨라졌다. 더욱이 어느 순간부터 공부라는 생각보다 글쓰기와 대화하는 놀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글쓰기의 조언과 경험 등을 듣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재미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결국은 여름휴가를 흥대 영풍문고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땐 스스로가 믿기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시회나 뮤지컬관람 등 시간이 날 때면 폭넓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다양한 분야와 환경에 접하기 위해 노력하며 영혼의 살을 찌우고 있다. 이후 21g 영혼의 무게에 0.1g이라도 더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자양을 통해 얻은 영혼의 무게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지난 시간동안 다양한 책과 강연, 사람들을 만나며 누구보다 알차게 성장한 36명 중의 한 명이 된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 친구 생일선물을 사러 서점으로 가는 것에, 구석에서만 사진 찍었던 내가 정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서슴지 않고 거는 모습에,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하던 다이어리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꽉 차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에 행복한 9개월이었다. 시합에서 공이 네트를 건드릴 때 공은 넘어갈 수도 그냥 떨어질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공은 넘어가고 이긴다. 반대의 경우 패배한다.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운에 맡길 나의 공을 건드린 바람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움직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바람의 세기는 앞으로 나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 [ 박훈순 - 전지전자전파공학 ]

### 끝의 시작

끝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제가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지원하게 된 건, 부모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절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막상 지원은 했는데 자소서도 마감기한보다 하루 늦게 보냈었고, 면접 때도 제대로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개월의 교육을 모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에서의 9개월은 제 인생플랜에서 전혀 계획되었던 적도, 시간이 할당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추천해준 우연한 프로그램이 제 인생의 9개월을, 나아가서 인생전체를 바꿀 계기가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찬찬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 **Elective, 다양한 인생 선배들을 만나다.**

항상 매 수업의 처음을 장식했던 Elective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생각이 났지만, 사실 제가 제일 얻은 게 많다고 생각되는 수업이 Elective입니다. 이 수업에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도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해주셨던 지식은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을 많이 넓혀주었습니다. 막연히만 알고 있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도 늘어났고, 무인판매기를 통한 무인스토어의 확장도 알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하는 저희에 입장에서 현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분들의 스토리는 저희에게 커다란 양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젊은 사업가분들의 얘기는 제 인생을 바꿀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막연하게 일반회사에 들어가서 적당히 퇴직까지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전보다 편안함을 택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줄곧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새로운 것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어찌지? 실패하면 돈은 어떻게 벌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가로막아 새로운 시도를 향한 움직임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지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들의 도전 이야기와 성공 스토리를 들은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자! 제가 좌우명으로 정한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자" 를 실행할 확신이 생긴 겁니다. 비록 한술에 성공하긴 어렵겠고 많은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그 또한 다 경험이며 제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하고 부딪힐 겁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강의를 하러 오신 분들처럼 될 수도 있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Elective강의는 확실히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 **Module, 생각의 깊이를 더하다.**

module 수업은 제게 일주일에 한권 이상의 책을 읽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안 읽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생이면 많은 책을 읽으면서 살겠죠.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 삶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책, 꼭 물



라도 지장 없는 책, 제 전공과 관련 없는 책. module에서 읽게 된 책들은 거의 이런 부류의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공대생이다 보니 평소에 수식이 써진 책과 과학원리가 적힌 책을 주로 읽습니다. 이런 책들을 주로 보고 있으면 숫자가 문자보다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가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서 읽은 책들은 대부분 제겐 재밌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릿이란 자기계발서도 읽어보고, 노자인문학으로 인문학도 공부해보고, 화가의 통찰법이란 예술관련 서적도 읽었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로 역사까지 훑었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교양서적이란 겁니다. 말 그대로 필수적인 지식은 아니란 뜻이죠. 하지만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며 이런 교양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지식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존재입니다. 이런 걸 위해선 폭넓은 교양이 필요합니다. 저는 module에서 그런 교양을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루 책을 읽는 습관을 익힌 것도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죽기 직전 때까지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7개월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읽어나간다면 제 생각의 그릇도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Case Study, 실전 감각을 기르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대생입니다. 공대생의 장점이자 문제점은 사물을 볼 때 원리나 기술적인 부분을 봅니다. 즉,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Case Study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저 혼자 일할 일보다 다른 동료들과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커다란 프로젝트를 실행하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익히면서 다른 조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 조사를 한 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축소판을 경험해본 것이지요. 그리고 Case Study에서 가장 도움이 된 건 시장조사였습니다. 저는 개발을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얼마나 기능적으로 뛰어난가, 얼마나 혁신적인 것인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시장은 달랐습니다. 고객들은 항상 더 좋은 기능을 원하지 않고, 항상 색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낡았고 불편하지만 익숙한 걸 선호하는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진짜 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조사해본 건, 저는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상품을 만들 때, 지금 배운 지식은 많은 쓸모가 있을 겁니다.

### **끝의 시작**

위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다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Case Study로 동료와 일하는 법을 배웠고 시장에 대해서 파악했으며, Elective에서 실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Module에선 역사, 인문, 예술 등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조각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배우고 끝내려고 배운 게 아닙니다. 늘 수업에서 강조했듯이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가 없는 법입니다. 배운 지식들은 실제로 활용을 해야 쓸모 있는 지식이 됩니다. 비록 자양에서의 배움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양에서의 배움의 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양에서의 마지막 문구, 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윤소율 - 식품영양학 ]

### 지금과 또 다른 나를 찾아서

처음 생각은 단순히 매주 책을 준다는 것에 끌렸다. 책 욕심도 있었고, 독서를 습관화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글을 좀 더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자양라이프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이런 단순한 출발점은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온 것 같다. 프로그램을 하기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은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긍정적인 나, 도전하는 나, 끝까지 노력하는 나 등. 글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대외활동이었기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 #봉사를 하기 전과 후

대외활동 수료 기준에 봉사활동이 있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헉' 했다. 봉사활동은 20살 이후로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기에 작지 않은 부담을 가진 것 같다. 그래도 성격상 일은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놔야 속 편하다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시간 채우자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알아봤던 것 같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찾는 봉사활동은 원하는 걸 찾기 어려웠다. 그렇게 1달 정도를 봉사는 하지 않고, 1365 페이지만 뒤적거린 것 같다. 그러다 꾸준히 하는 걸로 지원해보자는 생각으로 찾게 된 봉사활동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그룹상담 프로그램 보조' 였다. 처음 지원할 때는 단순히 도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기에,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도움을 주며, 옆에서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1365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신청 할 때, 일주일에 이틀을 신청했기에 센터 선생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다.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닌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고정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괜찮겠냐는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이왕 하기로 한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한 1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문제될 것은 없을 거란 생각이 컸다. 그래서 반복되는 선생님들 걱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고정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강행하기로 했다.

생각 외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시간 내서 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하루하루 다니다 보니,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어딘가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에서는 말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기만 한다면 쉽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혼자서 공부만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나에 대한 가치를 찾으면서 봉사하는 즐거움을 차차 알게 되었고, 시간을 채운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고정적인 봉사 외 다른 다양한 봉사를 찾아 도전하게 되었다. 그 중 자양라이프

아카데미 2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가질 수 있었기에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최근에 다녀 온 쓱쓱 캠프 교육봉사는 내 자신에게 큰 의미로 남았다. 여태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교육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일이었다. 교육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봉사라는 것보다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

현재는 봉사활동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였다. 처음에는 봉사가 수료기준이라는 게 부담이었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면 봉사활동 시작의 계기를 준 자양라이프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감사함을 느낀다. 이제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수료하지만, 이 이후에도 봉사는 계속될 것 같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준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감사합니다.

### **#공장을 다녀오기 전과 후**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갖게 된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이러한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집에서 보는 가족이 아닌,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동기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을 또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자양라이프아카데미 2기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고, 사소한 트러블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여태까지의 사회 경험이었다. 그랬기에 걱정 하나 없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한 것 일거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자양라이프아카데미 2기 동기들은 한 마음, 한 뜻 하나로 뭉쳐있었기에 끈 끈했고, 우정도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우리들 모두 함께였기에 이번 공장 실습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양라이프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함께했지만, 가장 크게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활동은 공장실습 아니었을까? 물론 수업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들도 값진 시간이었지만, 동기들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는 이번 공장 실습을 통해 함께 일을 해봄으로써 만들어진 것 같다. 지금보다 많은 동기들이 함께했다면, 더욱 좋았을 거란 아쉬움도 남는다.

힘들기도 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이만치 못할까?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내 자신이 된 것 같다. 앞으로 다른 힘든 일을 하게 된다 해도, 이 때 함께 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굳세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시간 자양라이프아카데미 2기로 활동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고, 수많은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지난 시간들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장을 다녀온 후 소감에 많은 내용을 담았기에 적고 싶은 말은 다시 인용했다. 2주정도 공장실

습 이후 자양라이프아카데미 2기 친구들이랑 더욱 끈끈해진 것을 느낀다. 함께 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일까? 그 전과는 또 다른 애정이 느껴진다. 인간관계가 팍팍한 사회에서 이러한 친구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

### **#감사일기를 쓰기 전과 후**

매사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1년을 신경성 위통으로 병원을 다녔다. 신경성이었기에 병원에 가면 한결같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치유하고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했던 내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감사일기였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감사일기가 자양 초반 강의였다는 것에 감사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알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감사라는 것에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감사라는 단어는 글자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를 하다 보면 긍정적이 될 수 있음을 왜 그 때는 몰랐을까?

자양에서 감사 강의를 들은 이후 매일 5감사 이상의 감사일기를 적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중간에 포기할 법도 한데, 강의 해주신 선생님 말씀 중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고 무작정 써온 것 같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감사일기를 쓰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현재까지 대략 2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감사일기를 기록하면서 나의 변한 모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되고,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되었다. 한 번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은 매사가 우울해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런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신경성 통증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작년에는 말도 못했던 아픔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까? 작년이랑 바뀐 것은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양라이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밖에 달라진 건 없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아픔을 사라지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자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다.

###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 나의 인생방향은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한다. 자양을 통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이 변했고 현재도 변하고 있다.

자양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사실 내 전공과는 무관한 게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자양을 통해서 사고를 넓히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

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향해한다 한들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다 끝나고 돌아보면 현재의 나는 자양을 통해 단순히 습득하는 지식 외의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다. 가장 크게 얻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함께 한 친구들인 것 같다. 물론 그 외 다양한 것을 얻어가지만, 그 전보다 단단한 마음가짐과 든든한 친구들은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 글로 남기고 싶었다.

이렇게 자양라이프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며, 그 전까지 다른 나를 찾는 대외활동이 되었기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동원 김재철 회장님 정말 감사하며,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발벗고 뛰시는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 [ 이준우 - 상담심리학 ]

### **온 로드(On-road)에서 오프로드(Off-road)로**

온 로드(On-road)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오프로드(Off-road)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의 휠, 타이어, 램프, 서스펜션 그리고 엔진 등 많은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는 온 로드(On-road)용 차량이었던 나를 오프로드(Off-road)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튜닝 프로그램 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온 로드(On-road)**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하기 전의 나는 온 로드(On-road) 차량이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었고 안전한 길로 가고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온 로드 차량이고 싶었다. 후륜 구동으로 앞 바뀌는 방향만 조절하는 고급 세단과 같은 온 로드(On-road) 차량 말이다.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져 보이는 차. 거친 길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다. 내가 직업적 목표로 삼은 것이 결코 편안하게 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편안한 길에서 달릴 수 있는 바퀴, 램프, 엔진들을 찾았고 그것들에 만족했다.

후륜 구동이나 전륜 구동 차는 날씨나 도로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눈이 많이 오면 주행을 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정돈되지 않은 도로를 달릴 때 힘들고 퍼지기 십상이다. 나를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이런 차량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흔들렸다.

#### **##온 로드(On-road)→오프로드(Off-road)**

인간을 탐구하는 인문학에서부터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책들과 2주간의 동원 창원 공장 실습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온 로드(On-road)차량인 나를 조금씩 오프로드(Off-road)차량으로 바꿔갔다.

평소에는 잘 읽지 않던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그 전과 비교하여 다양한 사고와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와 철학 고전 등을 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하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엔진을 좀 더 강하게 튜닝하여 추진력을 높여주었고 더 밝은 램프를 장착함으로써 어두운 곳에서도 거리낌 없이 달리게 해주었다.

창원 공장에서의 2주는 나에게 복잡한 감정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됨이나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감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다만 2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느끼고 그 분들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고 나의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돌아보았다.

2주간의 실습은 삶을 악착 같이 살겠다는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정신력을 주었다. 잘 정돈 된 도로에서 우아하고 멋지게만 달리고 싶어서 후륜 구동을 추구했던 나는 어떤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4륜구동으로 바뀌었다. 비포장 도로에서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튜닝 되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첫 날 자기 소개 시간에 말 했듯 나는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양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남들과 얘기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해서 프로그램의 중반을 넘을 때 까지도 같은 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공장 실습과 회식 등의 몇 번의 기회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것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공유했다.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즐거움을 느꼈고 인간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길을 달리다 보면 차가 퍼질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체인을 연결해서 끌어주고 당겨주어 차량을 수렁에서 빼내고 이끌어 줄 수 있다. 과거의 나에게서는 체인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가 없었다. 그래서 타인이 건네준 체인을 걸 수도 없었고 체인을 건네줄 수도 없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인간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 후로는 내가 체인을 건네줄 수도 있고 타인이 건네준 체인도 받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오프로드(Off-road)

8월 1일을 기점으로 나는 창업자가 되었다. 진정한 오프로드(off-road)로 들어선 것이다. 창업 과정 속에는 어려운 것도 많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있었다. 그럼에도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접목 시켜 사업을 성장 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고 이걸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오프로드(Off-road) 차량으로의 튜닝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마 죽을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은 많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업그레이드될 나의 서스펜션(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9개월간의 시간 동안 오프로드(Off-road)로 갈 수 있게 튜닝 해주신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의 선생님들 그리고 나에게 체인을 걸 수 있는 연결 고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 드리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오프로드(Off-road)에서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 [ 이다물 - 프랑스학 ]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부러웠다. 종이책을 진득하게 보는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책 읽는 것은 나에게 어찌면 한 사람의 지식을 대변하는 '표현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깨닫는 순간이 좋았기 때문에 지식 습득에 항상 열을 올리곤 했다. 주변 사람에게 지식있는 인물로 여겨지는 순간이 좋았다. 그렇지만 책 하나를 끈기 있게 읽어본 경험을 더듬으면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독서는 항상 우선이 아니었다. 눈 앞에 있는 휴대폰 속 세상이 중요했고 당장 치를 수없는 시험이 중요했다. 집 서재는 예전부터 부모님과 언니오빠가 쌓아둔 책으로 가득했다. 아마도 이쯤이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공부를 비롯한 지식쌓기와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보는 영상으로 얻었다. 놀러 밖에 다니는 시간을 빼고는 백과사전 전집을 읽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순간 손쉽게 닿는 인터넷 플랫폼에 크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얻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모든 정보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나 인터넷강연, 영화 등은 굳이 종이책에게 다가가야 할 이유를 희석시켜 주었다. 그래서 독서는 항상 나에게 다가가기 힘든 친구였다. 마음속으로는 원하지만, 선뜻 꾸준히 도전해보기는 어려운 상대. 누군가는 습관처럼 책을 대하겠지만 나에게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작년에는 매주 도서관에 갔다. 공강시간에 책 구경을 하고 읽고싶은 몇 권을 골라 대여를 했다. 꾸준히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보여주기식도, 과제를 위한 독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진짜 독서'의 의미도 잃었다.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지원한 이유는 시험 또는 눈에 보이는 경력에서 한걸음 떨어진 목적으로 학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큰 기대를 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문을 좋아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른처럼 노는 것만이 내가 꿈꾼 것은 아니었는데. 고생하며 공부하던 고등학생 시절의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심지어 그 때가 도서관에 더 자주 들르고, 책 냄새를 가까이서 맡고,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자양라이프가 내건 1주일 1권 독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전이었다. 나는 나를 시험대에 밀어두었다. 종이책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다. 자격증 책, 전공서적이 아니라 소설책을 사기위해 용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옷과 화장품, 커피와 맛있는 저녁을 포기하고서 책을 읽으러 갈 수 있을까?

학교생활과 자양라이프를 병행하는건 정말 바쁘게 살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가능했다. 중학생, 고등학생때와 똑같이 나는 시험, 수업과 평행선에 놓인 책을 대해야 했다. 책은 읽고싶지만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 책을 내려놓으며 드는 죄책감은 적었다. 그렇지만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하면서는 책을 차선으로 두면 마음이 불편했다. 이 배움터의 일원이 되며 스스로 했던 다짐, 매주 토요일 열띤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이유였다. 비록 내가 직접 산 책은

아니지만, 토요일마다 새 책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읽기 전인데도 핑계가 가득하던 나와 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분이었다. 전공책만 들어있던 가방에 책 한권이 자리를 차지했고 지하철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머리 말릴 때, 자기 전에 휴대폰 대신 책을 쥐고있게 되었다. 자양라이프에서 읽은 많은 책 중에는 내용파악이 쉬웠던 것도 있었고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어려워 제자리 걸음인 책도 있었다. 이렇게 반 년에 걸친 아카데미 과정이 끝났다. 그동안 20여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비로소 서재가 '내 책'으로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흰 종지와 잉크로만 표현된 책을 읽으면서 그 속의 내용을 상상하게 되었다. 머릿속에 어떤 장면도 주입시키지 않고, 오로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또 처음에는 한 권을 읽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지금은 진득하게 독서에 임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독서에 집중을 하고나면, 나를 위해 뭔가를 한 듯한 성취감이 들었다. 어떤 다큐멘터리나 영화, 검색창 보다 매력적인 점을 찾은 것이다. 좋아하는 작가도 한 두명씩 생겼고 강연도 찾아듣게 되었다. 지금은 전공어 프랑스로 읽을 책도 정해놓았다. (수료집에 실리면 더 책임감이 생길 것같으니까 무슨 책인지도 적어놓아야겠다. **다비드 포앵키노스의 샬로테다**. 올해 안에 원어로 정독, 완독하는게 목표다) 무언가를 읽고 장면을 상상하며 글을 쓴 사람의 심리를 추리해내는 것은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 [ 나호빈 - 재료화학공학 ]

### *Reboot* [ˌriːˈbuːt]: 재시동[리부트]하다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기였던 내 친구 정수로부터 였다. 처음에 친구가 이 대외활동을 한다고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다. 왜 굳이 공대생이고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 녀석이 왜 이런 대외활동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지나고 온 내 친구의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오거나 색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자양라이프 아카데미에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자양라이프 아카데미에서는 우리는 매주 한 권씩 받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생각해볼 문제를 줘서 토론하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슈퍼피셜 코리아랑 아이네이스다. 슈퍼피셜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안위를 자주 걱정하는 나로서는 정말 흥미가 있던 책이었다. 어쩌면 이 주에 내가 가장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아이네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떻게 로마가 건국되었는지 주인공인 아이네이스가 어떤 고생과 어떤 마음으로 로마를 건국했는지 나와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알고있었던 이야기의 뒷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 후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대체로 Module 수업은 흥미로웠다. 여태까지 내가 잘 읽지 않았던 인문학, 역사, 예술, 사회 등의 서적을 읽으면서 안 해봤던 생각과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으며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얻은 것이 많다. 먼저 울곡인문학을 읽으면서 나의 좌우명을 정할 수 있



게 되었다. 여러가지로 다양한 서적을 읽으면서 생각이 다양해진 느낌이다.

그리고 Virtue Project와 3분 스피치 등 어쩌면 나와야 할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 막연히 알고 있던 덕목들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들은 모두 한 가지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3분 스피치는 어땠을까? 물론 학교에서도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지만 자양라이프 아카데미에서처럼 발표를 자주했던 순간은 없었다. 하지만 발표라는 것은 학교나 대학원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따라 갈 숙제였다.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 담임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슬슬 발표에 대한 방향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벌써 토요일마다 20층에 올라가지 않은지가 한달이 넘었다. 그 동안 일상처럼 여겨졌던 토요일 아침 9시의 바나나와 자양라이프 아카데미 수련생의 다짐도 이제는 없다. 하지만 내가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 지를 생각해 보았다. 솔직히 아직 생각해야 할 것이 더 많다. 하지만 나는 바뀌어야 한다. 여태까지 그냥 살던 '나호빈'에서 더 나아진 '나호빈'이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 나는 첫날에 하고 나중에 자율로 바뀌었던 시간관리 계획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초부터 바뀌어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법이니깐. 여태까지 배웠던 것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점점더 바뀌어 나가서 REBOOT되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 박혜정 - 국제금융학 ]

### 동지를 떠나 힘찬 새 출발을 기대하며

추운 겨울, 토요일 새벽 네 시.우리집은 나를 깨우는 소리에 시끌벅적하다. 엄마의 휴대폰에서도, 아빠의 휴대폰에서도,내 휴대폰에서도 알람이 마구 울린다.그렇게 힘들게 깨서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첫 수업을 갔다. 4년 간 달려온 학교 생활에 지쳐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가 있으면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던 내게 매주 토요일마다 열심히 할 일이 생겼다!

처음엔 매주 수업을 하면서 나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똑똑한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 열심히 사는 친구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밝히고, 조리있게 발표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도피 휴학을 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친구들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가며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어가기도 하고, 수업 때 손을 들어 발표를 해 보기도 하며 조금씩 자양인이 되어갔다.

내 첫 발표는 바른 인재에 대한 3분 스피치였다. 내가 생각했던 바른 인재란'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 없이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 이었을 것이다. 나의 경험을 예시로 들어가며 스피치를 하였는데, 감정에 복받쳐 울컥한 순간도 있었지만 스피치를 하는 동안, 날 쳐다봐주는 동기들의 눈을 맞춰가며 스피치를 잘 마무리 지었다.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내 발표를 응원해주던 5조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날 나는 정훈이 오빠가 나에게 와서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오늘 달라 보이더라! 뭐가 진짜 박혜정이야! 다른 사람 같았어!”

장난치듯 건넌 말이지만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소극적인 것보단 적극적으로, 생기발랄, 활력 넘치는 내 모습은 어디로 갔던걸까. 확신이 없는 미래에 벌써 겁을 먹고 도망쳐서 나를 공공 싸메고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 한참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양을 하는 동안 친구들을 보고 배워가며 나를 조금씩 바꾸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결정적으로 변화를 결심한 순간은 코칭 이후에 찾아왔다. 코칭을 신청하고 선생님과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두서 없이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선생님께선 묵묵히 들어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다. 통화가 끝난 후 며칠간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았다. 그리고 일단 복학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더 이상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나씩 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3월, 나는 복학을 하였다. 남은 전공 학점도 마저 신청하고, 재수강이 필요한 과목도 듣고, 전공 관련 학회도 시작했다. 두번째 코칭 날짜를 정하며 선생님께 보여드릴만한 결과물이 생긴다면 먼저 연락 드리겠다고 호기롭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딱히 그럴만한 게 없어서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함정이긴 하다.ㅎㅎ

자양을 시작하고 난 뒤 내 목요일 밤은 자양 과제 제출을 위한 날이 되었고, 금요일 밤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놀지 않고 집에 일찍 귀가하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양에 지각하지 않는 것이 하루 목표가 되었고, 매주 토요일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하거나, 과제가 갑자기 많아진 주가 되면 조금 벅차기도 했지만, 조별 카톡에서 서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응원해줘서 힘이 났다.

자양을 하면서 읽지 않던 책을 접해보고 많이 읽을 수 있어 좋았고, 강연들도 유익했으며 담임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들도 참 많았다. 그러나 자양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을 하나 뽑아보라고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자양 친구들’이라 답할 것이다. 자양을 하는 동안 나는 이곳에서 ‘내 편’을 많이 만든 것 같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얻었다. 내가 고민이 있을 때면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걱정해준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함께 하기도 한다. 한 살씩 커가고, 더 큰 사회를 만나게 될수록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게 참 힘들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다.

자양의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7월. 여전히 내 생활은 자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 7월 중순에는 공장 실습을 다녀왔고, 7월 말에는 자양 봉사단으로 쓱쓱캠프를 다녀왔다. 매주 토요일에만 보다가 매일 보니 색다르고 즐거웠다. 더운 여름 날, 함께 고생을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 너무 좋았다. 실습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그리고 캠프를 다녀왔을 때 친구들의 빈자리가 다른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 수료식을 하고 나면 어느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된 자양 친구들을 매주 보진

못하겠지만 신문스터디나 봉사단 활동으로 계속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도요!!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그 덕에 나는 많이 변화했다. 다시 에너지를 넘치는 나로 돌아왔고, 복학도 했으며,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씩 하나가고 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엔 부지런해졌으며, 서점에 가면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잘 유지해 더 나은 나로, 그리고 우리가 수업 때마다 스피치했던 '바른 인재'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수업에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 2기 박혜정입니다. 제가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연을 하러 서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제 강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오겠지? ☺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수련생의 다짐을 되새기며.

2018년 8월 9일.

## [ 최규원 - 동양화 ]

자양 활동을 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강의를 들었지만 전보다 엄청 똑똑해지거나 유식해 지지는 않았다. 처음에 자양에 들어온 목적은 남들 앞에 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 유식해지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엔 실패했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생각만큼 아는 게 많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았다.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생각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해보며 느꼈기 때문이다.

대신에 자양을 하는 9개월의 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뼈저리게 내가 얼마나 작은 우물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잘 그리는 것'에 만 집착해서 내 모든 관심, 에너지를 거기에만 쏟았다.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배우고 싶은 것, 배워야 할 것들은 다 나중으로 밀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불편한 점이나 한계를 못 느꼈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자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접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 놓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다.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많았고, 알아도 아주 겉핥기 식으로만 알아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다들 저런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저리 자세하게 알고 있을 수 있을 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까.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지금까지 내가 너무 좁은 범위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정말 많고, 나를 둘러싼 것들에도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구나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알아가야 할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 보이고, 이미 남들에 비해 늦은 것 같아서 막막하게 느껴졌다. 공부해야 할 필요성은 느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였다. 당장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한테 혼나는 것도 아니니 귀찮을 때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나중 일로 넘겼다.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나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단어나 사건, 인물이 나오면 바로

바로 조금씩이라도 찾아보고, 책이라도 읽어보는 습관(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생겼다. 모르는 것을 그냥 알지 못한 채로 넘길 때마다 마음속에 남는 불편함. 이것이 자양을 하기 전과 후 나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다.

### Case study, 조별 활동을 하기 전과 후

두 번의 케이스 스터디 중 두 번째 조와 함께 한 '츠타야' 케이스 스터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스터디 활동을 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처음으로 알게 된 기업인데, 츠타야 창업주인 마스다 무네아키의 경영 철학, 기업을 경영하고 키워 온 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도 감사했지만, 더 좋았던 건 조원들과 함께 하는 과정이었다. 창업주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 배울 점들을 서로 나누며 더 많은 걸 알아 갈 수 있었다. 처음 해보는 케이스 스터디라 형식도, 다루는 내용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같이 하는 덕분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팀으로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다. 전에는 다른 사람과 일하는 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의 조별활동을 끝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혼자 일하면 편할 순 있지만, 내가 아는 것 밖에 보지 못하고, 내 능력 안에 있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나눠서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경험, 장점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인 것 같다.

## [ 이준석 - 금융정보통계학 ]

### 사람다운 삶과 그것에 대한 가치

####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하기 전과 후의 모습>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알기 전 저는 그저 전공수업에만 매달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하루 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을 주시며 지원해보라고 하셨고 '인생을 좀 더 알차게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2017년 1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8월까지 약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내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렇게 서울을 다니며 대외활동 하는 것은 처음이라 기대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할 땐 처음이라 그런지 어색하기도 하고 적응도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나의 의견을 동기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원래의 성격상 남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말하고 떠든다는 것을 꺼려했었고 그저 놀기만 좋아했던 저로써 초반엔 조금 힘들었지만 '성장하는 데에는 고통이 당연히 따른다'고 생각하여 하루 하루 열심히 하나라도 얻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자양2기를 대표하는 기장이라는 직책을 얻었고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장이라는 자리를 빌어서 자양을 하기 전의 제 소심했던 성격을 자양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좀 더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며 다른 사람

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과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양을 하기 전 저는 매년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학회장 혹은 대학원생들의 말을 들으며 그저 따라가기 바빴었지만 자양을 하면서 반대로 직접 이끌고 따라 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경험할 수 있어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성격적인 것 이외에 독서능력과 시간관리 등 여러 가지의 항목을 훈련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좀 더 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내 의견도 말하면서 사고력과 통찰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었고 때로는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법, 때로는 한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의 분야를 접목시킨 융복합적인 사고를 하며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반했고 이러한 이유들이 '지금의 나, 좀 더 성장된 나'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자양, 내 인생의 활력소>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일어나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약 2시간정도의 시간을 쓰며 도착한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놀기 좋아하는 저에게 금요일 밤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매주 나눠주시는 책의 한 글자를 더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사고를 하며 머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양에서는 수많은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 발표와 '바른 인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남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매주 바뀌는 책을 읽고 담임선생님과 동기들이 함께 의견을 토론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여러 분야의 여러 주제와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대표님들의 좋은 말씀을 통해 제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연을 통해 얻은 교훈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는 지행일치의 사람이 되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흥미로웠던 수업 중 하나였던 교장선생님의 'Case study'를 통해 우리가 흔히 들어보고 알고 있었던 회사들의 시스템, 재무상태 등 직접 알아보고 분석하여 발표까지 하는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2월말 쯤 갔었던 자양 캠프에서도 처음 게임 회사를 분석해보고 재무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지식과 용어들, 차트 보는 방법을 배우려고 아버지의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보면 '저렇게 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닌 후에 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일 수도 있고 직접 배운 전문적인 내용들을 동기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양에서 했던 덕목과 바른인재와 같은 3분 스피치, 동기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뇌섹남' 담임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더하여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던 독서활동 및 패널토론, 다양한 지식과 견문을 넓혀주신 각 회사의 대표님들 그리고 하나의 팀이 되어 어느 회사를 파헤쳐보고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자양 이준석'이라는 사람으로 당당히 말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도 생겼고 매년 춘천과 서울을 왕복하는 약 4시간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배운 것도 많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도움을 받은 것 같아 기쁘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를 얻은 것 같습니다.

###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 : 동원 F&B 참치공장 실습>

동원 F&B 참치 공장 실습은 제 인생에 있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좀 더 사람답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변화를 느끼게 해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치 공장 실습에 대한 소감문은 따로 썼지만 한번 더 떠올려보고 한번 더 상기시키고자 이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2주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직접 몸을 쓰며 땀을 흘리고 서로 힘을 합쳐 일을 하면서 단순히 공장실습이 아닌 인생을 설계하는 쪽에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365일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시는 이모님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며 얼굴에 불평하나 섞여 있지 않고 말은바 임무에만 충실하는 모습에 반했고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몇 시간만 일을 해도 덤다고, 힘들다고 칭얼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매우 창피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서로 힘을 합쳤고 다독여 주며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2주간 도움도 많이 받았고 배움도 많이 얻었고 현재의 삶을 기준으로 '과연 내가 열심히 살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문득 두렵다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열심히 동기들과 수작업으로 단 몇 개를 생산할 때 옆에서는 시끄러운 기계들이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것을 보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을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지만 몇 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그 수많은 기계에 정복을 당하겠더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무시무시한 힘과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한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값지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소감문을 빌어 다시 한번 공장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기획을 해주시고 힘써주신 선생님들과 김재철 회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의 나의 모습>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자양을 통해 얻은 것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양2기의 기장을 하면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과 남의 말에 경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감과 책임감, 동기들 혹은 조 별로 요구되는 협동심과 이타심도 배울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제 모습에도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약 7개월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수도 있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벌써 끝났다'라는 아쉬움 또한 컸습니다. 다소 어려웠던,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 옆에서 힘을 써주신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준 동기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 소감문을 쓰며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그것은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는 학교에서 남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잘 마무리 하는 것도 목표이지만 졸업을 하고 그 후에 무엇을 할지 우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한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보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양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자양 이준석'이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게 융복합적인 사고와 지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5일은 자양2기의 수료식날입니다. 수료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각자의 인생을 개척하는 데에 있어 힘차게 뛸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9개월간의 노력이 한 순간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최고로 바꾸는 그런 자양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길을 조금이나마 다듬었던 시간이었고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대표님들, 동기들과 특히 이 모든 것을 신경써주시고 기획해주신 김재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 [ 김다정 - 조경학과 ]

### *'현재가 아닌 미래로'*

자양라이프 2기를 마치며 지금까지의 수업과 활동을 되돌아보니 시기가 참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교를 입학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다가 4학년 1학기가 되어서야 여유가 생겼고, 그 빈 시간을 자양라이프를 통해 알차게 채워 나갈 수 있었다. '현재'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양라이프를 통해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 *'시작은 소개였지만'*

사실 시작은 아버지의 소개였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며 소개해 주셨는데 관련 유인물을 읽고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지식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나는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었다. 흔히 말하는 꼭 읽어야 한다는 필독 도서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인지 매 주 책을 읽는다는 프로그램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한 권을 받으면 전부를 읽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읽으려고 노력했고 나중에는 그 분량이 조금씩 늘어났다. 남은 시간을 무언가에 집중하며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여 참여하게 된 이유도 컸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아도 결국 제일 두고두고 남을 것은 동료들이다. 내 성격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 유쾌했다. 동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사님을 통해서도 내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사실 나는 학교에서 조용하게 학과 생활을 하다가 3학년 2학기부터 교내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다른 과 사람들과 친해지고, 한마디로 나의 인간 관계는 굉장히 좁았다. 그런데 자양라이프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접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 *'우리는 할 수 있다!'*

특히 자양라이프 활동을 참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매주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매주 정해진 덕목에 대해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데, '다정', '관용', 등 평소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이미 내제되어 있지만 막상 실천하지는 못하여 후회하는 것이 다 덕목으로 이어진다. 글로 정리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마음을 다시 다지는 시간을 통해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캠프 때의 활동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조는 4명으로 남들과는 조금 특별한 조였다. 그래서 더 협동하려고 노력도 하고 뒤에서 몰래 울기도 했었다. 처음엔 각자의 전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조원들을 보며 주눅들어 캠프 활동이 어려웠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기에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눈치 챘는지 조원들이 진솔하고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그 결과 나는 내가 잘 하는 분야에서 도움을 주었고 결국 우리는 1등을 하는 기쁨도 나눌 수 있었다. 그 순간 만약 내게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발전없이 이 프로그램을 마쳤을 지도 모른다. 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그 누구라도 빠짐없이 개개인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마음이 울렁거리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이 아닌 '우리'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져온 결과는 대단했다. 이런 작지만 내게는 크게 생각되는 사건들이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겨울에서 여름까지'**

첫 만남이 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의 끝자락에 서있다. 오랜만에 글을 쓰니 이번주의 기자가 된 느낌도 나고 새롭다. 자양라이프의 일원이자 기자로 활동해오면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세심함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쓴 글이 그냥 혼자 보는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고 더 읽기 좋은, 멋진 글로 재탄생 된다는 것이 너무 벅찼다. 또 나의 글을 읽고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생생하게 장면이 느껴졌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서 울리는 목직한 울렁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변화시킨 겨울, 봄, 여름. 그리고 앞으로 혼자서 보내게 될 가을을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다.

### **[ 정우준 - 신소재공학 ]**

#### ***우물 안 개구리, 날 지칭하는 말이었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지 5년이 되었다. 그러나 흔히 학창시절이라고 말하는 중고등학교 시절 읽은 책들, 친구들과의 대화 등 만이 지금의 내 생각들의 기둥이 되어 있었다. 그럼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대답할 것이 많이 없다. 학창시절 한주에 두권, 세권 읽던 책은 한달에 한번 읽을까 말까 했고, 매번 쓰던 독후감은 쓰지 않은 지 오래였다. '대학교 가면 다 해보아야지'라는 포부는 접은지 오래였고, 그렇게 군대에 입대했다.



누군가 그랬던가,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면 철이 든다고. 하긴 직접 겪어보니 군대란 철이 들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국 팔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다 보니 참 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은 그들이 나에게 기대를 하게 했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 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꽤나 흐른 후,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배우려 하지 않았다. 단지 유지만 할 뿐. 그렇게 전역을 했다.

복학 후, 달라진 캠퍼스는 너무도 낯설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수업.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한 공고를 보고 흥미로워 지원을 했다. 떨어질 줄만 알았는데, 12월 초에, 나는 그곳에 있었다.

그동안은 내가 읽고 싶은 책만을 읽었다. 흥미 위주의 소설책 같은. 하지만 다양한 책을 읽어 보니, 책의 장르, 주제마다 글쓰는 법이 다르고, 읽히는 느낌이 다르고, 읽고 난 느낌이 달랐다. 음식도 편식하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독서 라이프 또한 편식 없는 다식을 하기로 다짐했다.

조별과제의 잔혹함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팀장+팀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버스기사+승객+프리라이더로 구성되는 것이 팀플인 것을.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케이스 스터디는, 내게는 다같이 힘쓰는 줄다리기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졌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함께 하면 즐겁다, 봉사 또한 그렇다. 혼자 하는 봉사는 뿌듯하긴 하지만 재미가 없다. 하지만 함께 하며 함께 힘들고, 같이 즐거운 것은 노는 것 뿐 아니라 봉사에도 적용되어, 봉사의 즐거움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났다. 한 학기가 끝나고, 계절이 두 번 지나간 그때 첫 외부 활동은 끝이 났다.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책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 **내 우물은 호수가 되었다.**

호수는 언젠가는 바다가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며 나는 내 가능성을 더 넓히고 싶다.

## **[ 임지나 - 소프트웨어학/경영학 ]**

### **#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하기 전과 후, 앞으로 나의 모습**

최근 사용하지 않던 노트기능 웹 서비스의 자료목록을 정리하던 중, 눈에 들어온 메모가 있었다. 2017년 4월 18일, '독서 토론 동아리를 찾아보기, IT경영학회 동아리 찾아보기' 였다. 메모를 보자마자 그 때의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당시 나는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전공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확대, 관계의 폭 넓히기가 머릿속에 가득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메모 속의 동아리라고 생각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7년 12월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만나서, 그 계획과 소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루

었고,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만나서 내가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질적으로, 규모적으로 탄탄하고 넓은 폭의 지식을 얻었고 특별한 경험을 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다. 계획한 바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나의 관심이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존에 흥미를 가졌던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었고,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한 흥미와 관심이 살아났다. Elective 강연을 들으면서 나의 삶, 세상,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었다. 문학, 역사(세계사), 철학 등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해도 이전보다 친숙해졌고, 그 친숙함을 통해 자신감까지 얻었다. 책을 읽을 때 주어진 텍스트만을 이해하고 넘기는 수준에서, 이제는 스스로 질문하고 나만의 생각을 갖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서도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느꼈다고 한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이성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것은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기대한 부분이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는 멀게만 느껴졌던 부분이었다. 이 곳에서의 나의 모습은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부족하고 무지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독서 후 토론을 하는 것, 3분스피치, 대립토론 등 나의 생각을 말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매 순간 긴장했던 내 모습, 장황하게 말 했던 기억들, 내가 진짜로 생각하던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아쉬운 순간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반면 다른 동기님들께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함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위축감이 들어 유난히 긴장을 더 했던 것 같다. 조금씩 성장하는 내 모습이 느껴질 때면 또 다시 부족한 모습이 보였고, 익숙할 것 같은 순간에 또 다시 긴장하고 실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였다. 남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걷는 방법을 배워야 걸을 수 있고, 훗날 달릴 수도 있다. 처음부터 달리는 것을 바라지 말고,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고 나의 의지를 격려해 왔다. 성과적인 부분에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듯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졌다. 앞으로 내 모습은 여전히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욱 발전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분명 나는 변화했기 때문이다. 자양 라이프는 내 삶과 사고체계를 확장해 준 튼튼한 뿌리이다.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가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만난 것처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다시 기대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내 자양 라이프는 계속 될 것이다!

### # **덕목을 쓰기 전과 후**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활동 중 나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활동이 매 주 덕목쓰기라고 생각한다. 매 주 덕목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면서,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과 언행을 되돌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 주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 주 덕목을 쓰면, 마지막에는 나만의 실천 방안을 쓰곤 했는데 대체로 공통된 실천방안은 내 주변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덕목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슴에 스며들어 언행에 옮겨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욱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매 주 다른 덕목을 쓸 때마다 단번에 나만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거나, 이미 내린 정의가 아쉬울 때도 있었다. 'OO이란 무엇인가'를 이후에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보고 단단하게 나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그 주의 덕목에 대한 정의를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일상에서 새롭게 정의 내려보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지행일치가 실현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덕목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 [ 김승연 - 미디어콘텐츠학 ]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수련생의 다짐을 읽던 매주 아침이 떠오른다. 첫날 우리의 제창은 제창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각각이었다. 합이 전혀 맞지 않은 제창 후에는 정적과 어색함이 감돌았다. 무언가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초등학생이 우리보다 잘 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는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빠르게 읽고, 누구는 혼자 남을 때까지 느긋하게 읽기도 했다. 나는 고집 있게 천천히 읽다가 어느새 두세 단어는 더 읽은 사람들의 소리에 당황하며 급히 쫓아가는 쪽이었다. 그 과정에서 읽지 않은 단어들도 몇 있었다. 글을 읽는 것에서조차 내 모습이 보였다.

'남들은 상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라' 이런 충고를 자주 들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남들이 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생님께 질문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내가 재수를 하는 사이 이미 대학교에 들어가 2학년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취업을 하고 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들마저 있었다. 도저히 남들의 속도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20대는 시간에 비유하자면 아직 7시 30분이다', '20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는 배짱 좋은 말은 우습기만 했다. 나의 20대는 오롯이 내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부모님과 주변사람의 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몫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묘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내 속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나쁜 것으로 정의되자, 모른 척 지나가는 두세 단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고작 두세 단어에서 수십 페이지로 쌓여가는데도 외면하고 말았다. 결국 지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고, 놓아버린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만 느꼈다.

그랬던 나는 자양 아카데미를 신청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턱 선을 스치던 머리카락이 어느새 어깨를 덮을 정도로 자랐다. 휴학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양의 시작과 끝 만을 떠올리면 긴 시간은 전혀 아니었다. 그 사이 친구들은 인턴은 예삿일이며 취업을 하기도 했고 내년을 바라보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해낸 것은 많았다. 언제나 그랬 듯 나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조바심을 낸다. 이 글을 쓰며 오랜만에 돌이켜본 과제들이 지금의 나는 쓸 수 없는 글 같아, 과거의 내가 더 나왔던 것은 아닌

지 불안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첫날처럼 그들을 마냥 따라잡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텍스트로만 보던 인생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직접 깨닫게 된 까닭이다. 지금의 나는 목표가 하나 생겼다. 다시금 나만의 속도를 내려고 한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의 내가 조금하다고 해서 쉽게 이뤄지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일도 없다. 조바심이 나서 눈 앞에 아른거리는 것들을 건너 뛰면 내일의 내가, 내년의 내가, 먼 미래의 내가 분명히 후회하고 말 테니.

권종일 동기가 말했던 '여러분이 지금 저의 별입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자양이라는 별들 덕에 삶이라는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가야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자양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시 노를 저을 자신이 있다. 이 글을 빌어 자양의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각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내 존재가 주위에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수련생의 다짐 중 마지막 문구를 다시 한 번 읽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 [ 정수빈 - 외식영양학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We can do it.***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가슴 뛰는 일을 하자'를 본 대학교 동기 누나의 권유로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때로는 삶이 무료하고 때로는 삶에 치여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절실하게 지원서를 작성했다. 군 전역 후 계속된 학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등 실패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 칠수록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무기력한 나의 삶에 자양라이프 아카데미의 서류 합격은 나를 다시 일으켜줬다.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지원서를 다시 읽어보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마음을 잡고 면접에 임했다. 다행히 결과는 합격이었다. 정말 감사했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받는 것 같았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시작되는 수업, 금요일 밤의 온갖 유혹을 뿌리쳐야 수업을 듣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 여태까지 들었던 대학에서의 수업, 학교에서의 수업과는 완전 딴 판이었다. 진도를 나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질문을 오히려 장려하고, 학생이 강의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과 학생과의 설전이 펼쳐 지기도 했다.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수업 방식에 상당한 신선함을 느꼈으나 처음 겪는 수업 방식이었기에 적응하는 데에 힘들었지만 보람 됐다. 오전의 elective 수업을 통해서 책과 강의에서는 얻을 수 없는 명사들의 값진 경험과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고, 오후의 module 수업을 통해서 동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 혹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기들과 토론 수업 방식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확장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서 얻은 값진 경험과 지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크나큰 자양분과 원동력이 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 그리고 나처럼 역경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떨어졌으면 다시 오르면 돼.” 그리고 그들 가슴 속에 굳히 잠들고 있는 꿈과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고 싶다. 내가 자양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다.

## [ 공민기 - 국제물류학 ]

이 글을 쓰기 전, 지난 4월에 작성하였던 자양Befter를 읽어보았다. 아직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절반쯤 지나왔을 때 썼던 글을 보니 그때도, 지금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양을 들어오기 전의 나와, 저 글을 썼던 4월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첫 번째 변화는 공장을 다녀온 뒤 배운 것들이다. 공장을 다녀오기 전 나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활동도 했고, 자격증도 따고 했으니 이만하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장에 가서 산업현장에서 굵은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니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우리보다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개선점을 생각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다. 공장실습을 마치고 나와서 바로 성실하게 변한 것은 아니다. 25년간 살아오던 습관이 갑자기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고쳐가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씩 게을렀던 습관을 바꿔가고 있다.

두번째로는 처음으로 '장'을 맡아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다. 성격이 소심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탓에 어디에 가든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싫어했다. 다행히도 재수, 휴학 같은 것을 한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덕에 학교에도, 대외활동에서도 형, 누나들이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넘겼고, 지금까지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자양에서도 첫번째 조를 배정 받았을 때 소울 누나와 용길 형이 있었고 중간의 위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두번째 조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장을 맞게 되었다.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도, 한 조직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도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모든 것이 미숙했고, 이대로 가면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되돌아 보았을 때, 조원들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대한 조장으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마지막 케이스스터디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조장을 맡았던 몇 달의 시간은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직에서 리더를 맡을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이번의 경험을 살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점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과정은 앞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곳이 아니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회장님과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 이선희 - 경제학 ]

작년 12월 말부터 자양라이프 아카데미 수업(이하 '자양')을 들으면서 많은 점들을 느낄 수 있었다. 자양에서는 일렉티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을 여쭙보면서 삶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고, 모듈 수업을 통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적인 학습도 하였다. 물론 수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자양을 통해 가장 크게 느끼고 깨닫게 된 부분은 함께한 동기들을 통해 얻은 생각이었다.

자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책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에 관심이 가서 자양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저 내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 점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양이 시작되고 점차 수업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자양은 단순히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책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듈은 단지 책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은 이야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그 이상의 자신의 생각, 신념, 가치관 등 그 이상의 것을 토론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을 읽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고, 나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폭의 지식을 갖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일렉티브와 모듈 모두 유익하고 정말 좋은 수업이었지만, 내 또래인 동기들이 모두들 열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고, 자신들만의 생각을 빛나는 눈으로 말할 때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며 많이 반성했다. 아마도 또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좋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동기들을 통해 느낀 또 다른 점은 내가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지식수준이 높아졌다거나 역량이 증가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학교 학생들이나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다들 그렇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자양에 와서 동기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어릴 적의 내가 생각한 대학생'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동기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애착을 갖고 깊게 공부하며 소양을 쌓은 동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저, 내 지식이 한정적이고 깊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면서 동기들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다. 물론 강연자 분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매 시간마다 소중한 강의였지만 상하관계에서의 배움과는 별개로 매주 동기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 오선웅 - 무인항공기학과 ]

자양을 시작하기 전, 내 인생의 목표는 즐기는 삶이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꿈을 이룰까? 라는 생각 대신 어떻게 적당히 돈을 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지 생각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적당히 였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닌 딱 중위권에 머물기 위한 적당한 노력이 끝이 였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시작한 것도 할아버지의 추천에 의해서 였다. 자양 라아의 소개 책을 보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이끌렸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건 elective의 영향이 크다. 다양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철학, 노력 하는 삶을 보고 지금 내 모습을 반성했다. 수동적인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 내 주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3d 프린터로 의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였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특강으로 기억 할 것이다. 네이버 카페의 댓글을 보고 의수 제작을 시작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일면 식도 없는 사람에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대단했고, 내 목표를 만들어주었다. 남들에게 내 힘으로 행복을 주고 그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찬 사람이 되고 싶다.

자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책 읽기 였다. 핸드폰과 컴퓨터에 길들여진 나는 가끔 보는 소설이외에는 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 특히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간신히 책을 다 읽어도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독후감을 쓰기위에 노트북을 열어도 빈 워드를 띄워두고 어떤 말을 써야할지 몇시간을 고민했다. 책에 관해 토론할 땐 크게 놀랐다.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더해 자기만의 해석을 내는 모습이 대단했다. 그래도 나는 한걸음 한걸음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노력했다. 전날 벼락치기로 읽는 것을 조금씩 나눠 읽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곤욕스러웠던 글쓰기도 점점 생각하는 시간이 줄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책 읽기를 통해 어휘력이 부족했던 점이 보완됐고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주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 자양을 하며 책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아직은 내가 관심있는 책 위주로 보지만 자양에서 만들어준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처음 오티에서 8조를 보았을 때 정말 어색했다. 다른 조와 다르게 우리 조는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모두 집이 가까워서 자양을 하면서 누구보다 끈끈한 조가 되었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본보기가 되고 힘이 되고 가끔은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이 너무 행복하다. 자양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을 보며 내가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는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자양에 너무나 감사하다.

## [ 최예원 - 행정학 ]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 저는 책을 읽을 때에 소위 말하는 '편식'이라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횡수에 있어 그 빈도수가 적기도 했었지만, 종류에 있어서도 읽을 때 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의 책만 찾아서 읽곤 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거나 지식을 쌓아간다고 보다는 그저 즐거움에만 국한되어 있는 감상에 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신청하게 된 데에는 기존의 독서에 대한 저의 이러한 습관들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매주 한 권씩 읽고 또 이에 대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이러한 편재된 독서 방식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매주 책을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논리적으로 나의 감상과 이해를 펼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혹시나 내가 느낀 감상이, 혹은 나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거나 틀린 생각이면 어쩔까 라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그 자리에 나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 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경험과 배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가 저의 삶에 미친 영향은 바로 생활 패턴에의 변화입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하기 전 저는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늦게까지 자는,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지 않고 그대로 놓아버리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시간관리에 관한 특강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 보낸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완벽하고 엄격한 시간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보내는 시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없이 늘어질 수 있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에 참석하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인 습관은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가 끝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하기 전과 후로 저 자신에게는 앞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아주 사소하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계속 유지되다 보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큰 변화가 되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하면서 배운 덕목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태도가 앞으로의 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정훈 - 응용컴퓨터공학 ]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하기 전과 후, 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작년 12월의 나와 자양 수료를 코앞에 둔 8월의 나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다. 복학 후 군대에 있을 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독서량에 독서량을 늘리고 단순한 독서가 아닌 더 폭 넓고 깊은 독서, 그리고 독서의 습관화를 몸에 베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 자양라아였다. 놀랍게도 내가 계획했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양라아를 반년 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완벽히 성취했다. 사실 앞서 말한 이 독서에 관련된 목표만을 가지고 온 자양이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설정한 이 목표는 내가 자양을 하는 동안 얻게 된 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보니 나를 더 놀랍게 한다.

그래도 이 독서에 관련된 것은 당연하게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에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나의 전공과 흥미에 관계없이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나는 그저 자기계발서나 베스트셀러 소설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하지만 자양에 와서 동, 서양 고전들과 인문,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배경지식이 넓어 짐은 물론이고 이런 다양한 장르들에 대한 진입장벽이나 불편한 감정 없이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이고 좁은 내 세상을 한 겹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책의 저자가 당연히 나 보다 박식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전에 책을 읽을 때는 비판적인 생각 없이 책을 읽었다면 자양에서 에세이를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책을 읽을 때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리고 꼭 언급하고 싶은 나를 변화시킨 활동, 바로 덕목 쓰기다. 이 덕목을 쓰는 것은 사실 자양2기들 사이에선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저 귀찮다고 여기는 동기들도 여럿 보았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덕목 쓰기를 통해 내 일상에서 큰 변화를 느끼고 내가 변화됨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다고 느끼는 활동이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전적인 정의로는 다 알고 있는 덕목들, 그 덕목들을 내 안에서 나만의 기준으로 재정의 내려보는 것이 나에게서는 나의 인성과 도덕성, 마음가짐,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확실하게 내 안에서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도움은 내가 정의한 그대로 나를 변화시켰다. 사라지지 않고 3기에도 쭉 이어지길...

자양에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아마 한층 상승된 자신감일 것이다. 3분 스피치, 패널 토론, case study,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자유롭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강의에서의 질문 등 우리는 반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내 의견을 남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떨지 않고 말하는 것, 여유롭게 또는 위트 있게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매력적으로 할 수 있게 꿈 준비하고 연습하는 기회들을 통해 처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쥐었던 우리와는 다르게 한층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된 나를, 그리고 내 동기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라이프 아카데미의 잠재력을 느꼈다.

사실 수료 에세이의 주제가 자양을 통해 내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제로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 하는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 주위에 자양 2기 친

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지만 자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감하고 이해하며 지내온 시간들로 결속된 이 유대감이 수료하는 이 시점에서 내 맘을 가장 풍요롭고 든든하게 만든다. 자양에서 가져가는 가장 큰 선물, 멋진 사람이다. 이 선물들은 자양을 하는 반년간에도 나를 많이 변하게 했지만, 반년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나를 변화할 수 있게 해줄 영구적인 선물이다. 그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내가 그 2기에 몸 실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수료한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련과 풍파를 만나겠지만 그때 마다 자양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따뜻한 등대 같은 존재로 내 곁에 머물 것 같다. 매주 토요일 아침, 멋진 자양 2기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동원산업빌딩 20층에서 뜨거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이 순간, 시원하기보단 섭섭한... 오히려 슬픈 감정마저 드는 마지막 에세이를 마친다.

## [ 이서영 - 물리학 ]

작년 가을에 처음 자양라이프아카데미 2기 모집 포스터를 봤을 때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취업이나 대학원이나 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나침반 없는 생활을 계속했었다. 그러던 중 이제는 뭔가를 해나가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도전한 것이 바로 자양이었다. 뻗속까지 이과에다가 독서를 게을리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인문학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과학, 기술부분의 강의는 자신이 있었고 오전시간의 다양한 강연에 대한 기대로 막연하지만 설레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릴 때 읽었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나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 수준으로 시작한 자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어쩔 때는 분명 한국어 글씨를 읽고 있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까지 있었다. 울곡 인문학, 대심문관 같은 책들은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안다'라는 말이 얼마나 와 닿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의 인생에서 평생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자양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날에는 예술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날은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졌다. 매 주 책을 한 권씩 읽지는 못할 것 같아서 감히 다짐할 순 없지만, 내 머릿속에 지분이 없었던 인문학이 뿌리를 박고 자리를 차지한 이상 계속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해나가야겠다.

Module에서 인문학의 가치와 질문하는 방식을 배우는 한편, Elective 강연에서는 만난 적 없는 직업, 학문, 그리고 사람을 알게 되고 배웠다. 굉장히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매주마다 느꼈으며 방황을 끝내고 뭔가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줬다. 걸음으로는 졸업하고의 가까운 진로를 정하고, 20년과 3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걸 안에 들어있는 (본인도 모르는 깊숙한)속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며칠 전 자양 2기 입학식 무렵의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사진 속의 내 표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둡게 느껴졌다. 첫 날이라서 긴장도 했었지만 최근 사진들의 밝게 웃는 모습

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기자단의 지난 기사들을 다시 살펴보니 자양에서 한 주씩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 속의 표정이나 행동이 밝게 변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제서야 김은자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토론이 있었던 날인지 module 시간에 패널토론에 참여했었는지 가물가물한 그 때 선생님께선 “서영이는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잘 웃게 되었는데.”라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요?”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다. 하지만 이제서야 그 동안의 자양을 돌아해보면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진해서 마이크를 들고 나섰던 동료수업, 도덕적 딜레마와 사회이슈를 발표했던 순간들, 같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자고 제안했던 숲길봉사와 대립토론에서 거침없이 비판을 날리는 태도까지 모두 자양덕분에 생긴 자신감과 용기였다. 자양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다.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였던 나도 더 당당하고 밝게 웃으며 지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양에서 배운 대로 주변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인 이서영을 향해서 노력할 것이다.

## [ 이건규 - 경제학 ]

어느덧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지난 9개월간 나는 어떻게 변했으며 어떻게 지내왔을까? 자양라이프아카데미가 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가지 고민을 해보았다.

사실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지원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다. 전역도 안 하고 말년휴가를 나오며 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글로 에세이를 쓰며 막막했다. 과연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붙어도 9개월간 할 수 있을까? 수업내용은 알아 들을 수 있으며 책을 읽어도 이해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나에게 묻고 물었다. 하지만 결국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해보고 생각을 하자 라는 마음을 갖고 나의 여정은 시작 되었다.

### **매주 독서를 하기 전과 후**

사실 독서를 매주 한다는것은 쉽지 않았다. 회사도 다니고 학교 수업도 있었다. 하지만 독서를 못 한다는 것은 결국 핑계라고 생각 한다. 처음에는 남들 두시간 걸릴거 네시간 다섯시간 걸렸다. 때로는 답답하고 포기 하고 싶고 그만 읽고 싶을때도 많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반도 이해를 못 한 적도 많고 똑같은 문장을 열번 넘게 읽은 적도 많다. 하지만 한권 두권 세권을 읽다보니 속도도 더 빨라지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내 자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보였다. 독서를 하고 또 에세이를 쓴다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많은 에세이들을 작성하다 보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글의 흐름과 논리가 잡히고 더 원활하게 썼던거 같다. 또한 독서를 통해 또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해서 좋았다. 자양라이프아카데미가 비록 끝났지만 앞으로 누군가의 강요 혹은 강제성 없이 나 혼자 스스로 독서를 자주 하는 사람이 되려고 실천 할 것이다.

### **Case Study 를 하기 전과 후**

사실 나는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과목중 케이스 스터디가 가장 흥미로우면서 재밌었던거 같다. 케이스 스터디를 하며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정확은 틀이 없어 조금 아쉬웠지만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료 조사나 시장 조사를 하나 법도 배우고 또한 한 기업의 비즈니스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었다. 조사를 하다보니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닌 전혀 무관한 내용도 배우면 여러가지를 배우면서 했다. 한 기업의 BM이 어떻게 구성 되 있는지, 기업들이 IR을 어떻게 하는지, Cash Flow, 시장 경제 구조, 타 업체 기타등등 무궁무진 한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쪽에 관심이 워낙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흥미를 갖은건 사실이다. 사람마다 개인취향과 흥미가 다른거 처럼 나는 이 과목이 제일 재밌었고 스스로 많이 배웠던거 같다. 현재 일을하면서 케이스 스터디 자료 조사한 내용들을 가끔 뒤돌아 보기도 한다.

### **3분 스피치를 하기 전과 후**

3분 스피치 바른인재를 처음으로 시작 한 것이 나 외 3친구들이었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 12월 30일 2주차 수업때 내 이름이 뽑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엇을 말할 해야 할지 몰랐다. 3분 스피치뿐만 아니라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발표를 한 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떨리고 힘들었다. 특히나 긴장했을때 한국말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달을 못하고 발음이 세는지..... 하지만 많이 하면 할 수록 발전이 되고 긴장감도 덜 했다. 회사에 들어와서도 클라이언트들한테 피티 할때도 자양라이프아카데미가 생각이 많이 난다. 해외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물론 영어로 피티를 하고 미팅 분위기 자체가 자양과 달리 테이블에 앉아서 informal 하게 피티를 하지만 여러명 앞에 단상 위에 올라가 연습을 했다는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다. 역시 경험과 내공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다. 스피치 자체는 얼마나 발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 어떤식으로 전달을 해야 오디언스가 이해를 더 쉽게 하고 어떻게 해야 전달이 확실히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던거 같다. 3분 스피치, 대립토론, 패널토론 기타등등 모든 발표들이 나에게서 매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시간들이었다.

### **감사일기를 쓰기 전과 후**

감사일기는 사실 매일매일 쓰지는 않았다. 수기로 두달간 매일 쓰다가 한달정도 안쓰다 틈날때마다 출근하면서 내 휴대폰 노트에다가 쓰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 앉아 있으며 내가 정말 고마운 한가지씩은 매일 쓰자 라는 마음갖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쓸때는 잘 몰랐지만 쓴 내용들을 꼭 뒤돌아보면서 읽어보았다. 정말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과 고마운 일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질려고 노력했고 더 주변에게 배풀려고 노력을 했던거 같다.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구나 하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된 것 같다. 이것이 100%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나는 최근 24년간 가장 행복 한 것 같다.

### **일렉티브**

나는 일렉티브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다. 다양한 과목을 접하게 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루 수업 중 가장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거 같다. 물론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과 그 채널들을 만날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 하러 오신 대표님들 교수님들 등 모든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말씀을 드

리고 싶다. 사실 몇분들은 따로 찾아뵙고 미팅도 갖은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각 분야별로 대단하신 분들을 내 채널로 갖고 있다는 자체가 좋았다.

###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말은 정말 끝도 없다. 내 자신을 9개월간 뒤돌아 보며 너무나도 발전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석했다는게 정말 후회가 없고 11월로 다시 돌아 간다 해도 원서 지원을 할 것이다. 금요일 밤또는 토요일 아침에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7일중 이틀이 아닌 하루밖에 못 쉬다는 것이 처음에는 거부감도 들고 힘들었다. 하지만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즐기며 많은 것을 배워 아쉬움도 남고 3기때도 꼭 다시 돌아 오고 싶다.

### **[ 김용길 - 산업인력개발학 ]**

내가 자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간단했다.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일까 자양에서 들었던 elective 강사 분들 중에 특별히 3분이 기억에 남았다.

첫 번 째는 장석준 사진작가님이다. 개인적으로 난 사진 찍는 것에 큰 관심은 없었고 사진 찍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사진을 찍을까 궁금했다. 그 분은 오실 때 서로 이야기 하게 책상 빼달라고 미리 하셨고(아마 그게 elective 때 처음으로 책상을 뺐던 날이었던 것 같다.) 불도 켜다 심지어. 그러면서 자신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획일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형광등 때문인 것 같으면서 자기 자녀분은 형광등을 안키고 키웠다는데 지금 공부는 못해도 아주 재밌게 산다고 이야기 해주셔서 초장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 외에도 연예인들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개를 키운 이야기나 다이아몬드 촬영을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한 이야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짜 여러 노력을 하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두 번 째 분은 더부스의 김희운 대표님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를 하신 분인데 신혼여행가서 매일 맥주 바에 있다가 오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셔서 한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기회가 되서 이제 수제맥주 집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것 저 것 했는데 하다보니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도 풀릴 수 있구나라고 느꼈다.

마지막으로는 더반찬을 매각하신 전종하 대표님이다. 이 분의 이력도 대단하고 특이했지만 내가 더 경이로웠던 것은 질의응답 때 누가 대표님은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없으셨냐는 질문에 자기는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는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그리고 자신은 일하는 게 익숙하고 좋아서 여행 이런 것도 거의 가본 적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자신의 삶 자체가 된 모습이 경이로워 보였던 것 같다.

내가 왜 특별히 이 분들이 기억에 남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사진작가 분도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니까 개인사업자로 분류를 하면 저 분들은 모두 다 사업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업가란 자신이 방향타를 스스로 돌리는 사람이다. 나도 스스로 방향타를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이 분들이 기억에 남지 않았나 한다.

자양 덕분에 내가 자양을 하고 남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 매진할 때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아님을 깨달았던 것 같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서 인생은 주관식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나와 이 길을 함께 걸어준 동기들과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며 바라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 **기억에 남는 것**

나는 글쓰기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글쓰기 수업에서 박정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소설가 박완서가 한 말인데 글을 쓴다는 것은 남들 앞에 알몸으로 서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수업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 말이 가장 와 닿았다. 글쓰기를 하면 일단은 그 글을 보는 내가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을 쓰면 그 사람은 사실 글을 자기 식대로 읽는다. 언어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던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자양을 하기 전에도 집에서 혼자 책을 보면서 맘에 드는 구절을 적고는 했다. 그래서 자양을 시작할 때 장래희망에 작가라고 적기도 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이 오래 기억에 남은 것 같기도 하다. 글쓰기에 대해 배울수록 글쓰기가 어려운 느낌이었던 기억이 난다. 무엇이든 완벽하랴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알몸으로 서는 일을 해보려 한다. 앞으로의 나를 상상하며 이만 수료 에세이를 마치고 싶다.

### **[ 이수림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 ]**

동원 본사의 엘리베이터 20층 버튼을 누르는 떨리던 손이 아직 생생하다. 낯선 건물만큼 어색한 사람들과 생경한 프로그램에 지레 겁을 먹었던 것도 기억난다. 독서와 토론, 발표,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가 반복되는 9개월 간의 여정을 과연 내가 끝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학교를 다니면서 매주 책 1권을 읽으며 다른 과제들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학점을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양의 모든 과제들은 항상 밀려났다. 차라리 휴학을 하고 자양에 집중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종종 들곤 했었다. 그래도 수료 에세이를 쓰는 지금까지 과제를 못 냈던 적은 손에 꼽는 다고 자부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도 많고 게으름 피우기가 일수였던 나에게는 더욱 힘들었다. 또한 항상 촉박하게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야만 했다. 자양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지각과 결석은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던 탓에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고군분투했던 것 같다. 자양을 하면서 촉박하게 준비하고 늦을까 걱정하던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양을 시작하고 첫 1~2달은 나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왔다. 토론 시간에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오갔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다. 자양 초반에 이런 자괴감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바뀌려고 했다. 물론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분

야가 많지만 내 지식 분야를 넓혀주는데 자양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예술이나 과학 분야는 정말 흥미가 없었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양에서 듣고 보고 경험했던 좋은 기회가 조금의 호기심을 불러왔고 학문적 거부감이 들지 않게 도와줬다.

약 9개월 간의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하면서 동기분들이나 선생님분들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종종 궁금했었다. 가장 동생이라고 기억할지, 입학식 날 썬글라스를 쓰고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했다. 매주 덕목과 3분 스피치, 한 달에 몇말이라도 쓰려고 했던 감사 일기 등을 하며 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이 생겼었다. 그동안은 학업에 치이고 친구들과 술 먹고 노는 데 바빴던 내가 자양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더 고된 학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도 하게 되고 독서도 하고 매주 토요일을 동원 건물 20층에서 보냈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고 내가 정말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감사하고, 자양에서 받았던 고마운 은혜들을 나중에 반듯한 어른이 되어 꼭 베풀고 싶다.

## [ 박진형 - 전자전기공학 ]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의 모든 교육 과정이 끝이 났다. 항상 끝나면 후회하는 법이라고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는 이제껏 내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었다. 책을 읽고 다른 누군가와 생각을 공유하는 것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덕목들을 동기들 앞에서 말해보는 것, 스터디 케이스, 공장 견학 등등 20여년간 안 해본 일들을 반년동안 하게 되었다.

그 중 나는 매주 덕목을 썼던 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난 그리 깊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매주 한가지 덕목을 정하여 스스로 정의 내려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매주 덕목 쓰는 데에 남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붙잡고 글을 적었었다. 이렇게 어렵게 글을 적는 것은 덕목만이 아니었다. 독후감도 그랬었고 여러 내 생각을 요약하는 글을 쓸 때에는 한참 동안 붙잡고 있어야 글이 써졌다. 매주 힘들게 생각을 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다. 하지만 매주 버티며 글을 적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쓰는 것이 늘게 되었다. 내 생각을 하는 것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앞에서 하는 스피치도 늘게 되었다. 나는 비교적 3분 스피치를 빠르게 하였는데 발표를 잘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원래 말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발표해야 될 내 생각이 그리 많지 못했다. 그래서 매주 덕목을 적어본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아보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덕목들을 정의해봤고 많은 글을 적어봤지만 나는 아직 내 생각을 요약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약 9개월 동안 한 것은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덕목을 적으면서 든 생각들을 정리한 것처럼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과 다른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앞서 말한 덕목 쓰기 보다 내 성장에 제일 도움을 많이 준 것은 조원들의 격려와 도움이었다.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는 변함없이 예전의 생각 없는 '박진형'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나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었고 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덕분에 매주 한 주만 더 나가보자는 마음을 가졌었다. 그 친구들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매주 매일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다. 앞으로 그 친구들을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함께 했던 기억들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 [ 김경현 - 글로벌금융학 ]

### *자양라이프를 통한 삶의 작은 변화*

#### *[자양을 시작하고]*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하면서 내가 내 삶에서 이룬 큰 업적은 책을 읽는 것이다. 자양을 하면서 9개월 동안 일주일에 책 1권을 읽었다. 자양 9개월 동안 읽었던 책들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읽어야만 했던 책들보다 아마 족히 5배는 많을 것이다. 처음에는 매주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에 압박감을 많이 가졌었다. 그러나 모든 일은 3번 이상하면 습관이 되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이 기존에 책을 대하던 태도가 '하는 것도 없는데 책이나 읽자'로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과로 변하게 되었다. 자양은 책 읽는 습관과 같이 나에게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감히 내 스스로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

매주 독서를 하게 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던가 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것으로 여겼는데, 요즘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잊혀질까 두려워서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니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생각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그로므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말을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아직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고 있지만 나는 무엇인가와 같이 본질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다.

#### *[자양을 통해 얻은 것들]*

자양에서 덕목, 케이스 스터디, 3분 스피치, 봉사 활동들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법,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법, 강단에 서서 청중 앞에서 말하는 법 등 평상시에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자양이라는 작지만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나를 단련시켰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 외에도 여태까지 학교에만 머물러있던 인적 네트워크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얻어 갔다. 40명이나 되는 지성인들을 알아가고 그 중에서도 팀 활동들을 같이하면서 알고 지낸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친



구와 같은 팀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였다. 자양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를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다. 자양을 진행하는 것이 순탄하지 않은 않았기에 가끔씩 게으름을 피우긴 했지만, 그때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시 힘을 내준 나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여태까지 무언가를 해오면서 나에 관한 것이 아닌 외부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자양을 통해 생각의 확장으로 이제는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제 자양을 통해서 내 몸에 영양을 좋게 하였으니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겠다.

## [ 신용 - 기계공학 ]

주제를 보니 바칼로레아 문제 중 '지금의 나는 과거의 총합인가?'라는 논제가 떠오른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총합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과거는 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가 '내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무용지용이란 말처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끼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는 흥미가 없는 부분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로 얻어갈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일렉티브 강의에서 느꼈으며, 그래도 얻어간 것이 있다면, 후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말아야 할지를 체험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이다.

영향을 끼친 부분은 잘 모르겠다. 다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첫번째로 과학시간, 매 수업이 재미있었고 조원들과 그에 대해 얘기하는게 즐거웠다. 두번째는 모듈시간, 느낌은 다르지만 같은 이유다. 세번째는 발표(자기소개, 내가 생각하는 바른 인재란, 덕목, 동료수업 그 외 수업 중의 발표 등등)이다. 이 경우에는 발표를 하는 경험도 좋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어서 기분이 새로웠다. 그 밖에 캠프, 봉사, 감사일기, 글쓰기, 케이스스터디, 공연관람, 창업, 코칭, 대립토론, 동기들, 선생님들 등등 다 좋았지만 일단은 지식만 늘었을 뿐 나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무의미 하다거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이 끓기 전 과정일수도, 가랑비에 젖는 중일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자양을 끝나고 나서 계절학기를 갔다. 교수님이 수업 준비도 안 해오고 학생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해서 완전 별로였다. 수업 끝나고 시간이 날 때는 종종 알바를 도와주러 갔다. 대체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 나를 찾는데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필요해서 부른 건지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신이 소중해져서가 아니라 더 소중했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계절학기 도중 중학교로 2박3일 교육 봉사를 다녀왔다. 기획자 분께서 숙식에 교통, 간식까지 다 내주시고 일당까지 주셔서 미안하고 고맙다. 보드게임 쪽으로도 컨텐츠 개발을 하시는데 담에 같이 게임 만들 생각이 있냐고 물어 보셔서 흔쾌히 승낙

했다. 같은 방을 쓴 봉사자분은 연애 관련으로 고민이 많아 밤새 같이 이야기해주니 힐링되서 고맙다고 하였다. 하긴 같이 온 여자애들이 너무 놀리긴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 FEOS 항상 책을 읽는다 최근에 읽은 책은 '기사단장 죽이기'와 '먼지 먹는 개'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처음 읽었는데 많이 난해했지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정도 깨달은 것 같다. '먼지 먹는 개'는 소재가 신선하고 그럴듯한 내용과,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돋보였다. 기회가 있다면 이 책으로 토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같이 알바했던 사람 두 명이 같은 날 생일이어서 둘다 생일선물을 줬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생일선물을 준 적이 없었는데 올해만 벌써 세번째다. 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 그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무난하게 다니고 있다. 하지만 하고싶은 것이 아니기에 회사와 병행할 수 있을진 아직 의문이다. 내 측으론 언젠가 날 위해 선택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 본다.

## [ 선해용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 그 소동 동안

허물어진 봄과 여름동안 앞집이 완공되었다. 집 앞쪽으로 빌라 한 채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 마침 칠 개월 전이었다. 원래 있던 건물은 집보다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었다. 그 단독주택은 내가 이 집에 이사오기 한참 전부터 있던 건물이어서, '빌라 신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그 건물을 볼 때면. 반년이라는 시간에 관한 여러 생각을 하곤 했다. 혹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가가각. 이라고 해야할까. 디지털적으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휴지통을 비우는 소리. 아날로그적으로는 종이를 구기는 소리. 언젠가 종이가 모조리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종이를 구기는 소리를 듣고 싶은 누군가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켜야 할지도. 무언가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이니까. 깡깡거리며 연신 망치질을 해대는 인부들과, 건물들의 슬한 붕괴와 허물어짐. 공사의 소음. 종이의 구김. 종이의 소음.

지난 반년동안, 카카오톡엔 '큰 이모티콘'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고, 군인 병사와 공무원의 봉급이 대폭 인상되었고, 장현수와 조현우, 손흥민 세사람에 대한 갖가지 합성과 패러디가 남발했고,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누군가는 잃는 것에, 누군가는 얻는 것에 익숙해졌고, 가히 혐오의 시대가 되기도 했었고, 교촌의 배달비 소동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포장비 논란이 더해졌고, 어찌됐건 이 나라엔 그런 소동들이 더해지는 중이었다.

그 많은 소동 동안, 앞집은 묵묵히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자양을 말하려면 겨울을 말해야 했고, 그보다 앞선 나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수료를 앞둔 지금은 그런 겨울에 대해 혹은 앞선 나에 대한 소용을 못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긍정일지, 다른 것에 대한 부정일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찌됐건 나는 겨울이나 앞선 것들 것 대해 허물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추세이다. 간단히 말해, 글을 쓰는 것보다도 휴지통 파일을 딸깍거리는 것이 많았고, 말들이 부러지고 있다는

황정은의 문장에 한참을 후회하는 나날들이 있었고, 나보다 어린 나이에도 대형 출판에서 글을 기고하는 한 사람이 부러운 한편 무력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반년은 허물어지기 마련이었고 내겐 영향이라고 말하기엔 조약한 습관들이 생겼다. 어떤 수식을 붙여야만 형용할 수 있는 습관들. '조금 더' 글을 쓰기로 했다거나, '가끔은' 과학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찾는거나, '그래도' 책을 읽기로 했다거나, '조금씩' 말을 삼가지 않기로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 반년 동안, 그 많은 소동 동안.

선생님들께, 그리고 동기들에게. 얘기는 많이 나누지 못했더라도 언제나 감사하고, 즐거웠다.

## [ 김민환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 세상의 끝에서

나는 바다가 무섭다. 잠시라도 바다에 몸을 담고 있으면 온 몸에 소름이 끼친다. 무언가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허리를 휘감는 느낌이 든다. 금방이라도 바다 속으로 끌려들어갈 것만 같다. 그래서 내 자리는 여기, 선착장에서 배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을 기록한다. 바다는 무척이나 번덕스러워서 명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대부분은 근해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만, 일부는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그날도 그랬다.

자립 2호가 출항을 알리던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승선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던 중이었다. 반가운 얼굴 하나가 보였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다. 조금 이상한 것은 그 친구가 평소 바다라면 질색했다는 점이다. 나는 다가가서 물어보려 했다. "너는 바다를 싫어하지않아?" 그런데 물어볼 새도 없이 빠르게 승선해버렸다. 첫 발을 내딛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 땅에서 벗어나 바다로 걸음을 옮기던 순간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 그 흔들리는 느낌. 나도 모르는 사이 지면은 인생의 무게만큼 단단히 나를 받치고 있었다. 붕 뜬 감각 때문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배에 탔지만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풍경, 기대에 찬 표정들을 보니 덜컥 겁이 났다. 이곳은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닌 것 같았다. 내려가기 위해 얼른 몸을 돌렸다. 그런데 항구는 이미 저 멀리 있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먼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다. 이제 바다에 휘둘리며 멀미하는 일은 없다. 또 생명력을 얻었다. 자립2호에 승선하기 전 나는 안정된 구도의 풍경화 속 등장인물1이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 지금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바다가 무섭다.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버릴 것만 같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내가 항구에서 오고 가는 배를 기록하는 동안 세상의 끝에서 돌아온 배는 없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그만. 모두 바다에 먹혀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다. 이 항해의 끝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수평선 너머 세상의 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 [ 양지은 - 초등교육과 ]

###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에도 사실 끝이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수료 에세이를 쓴다고 하니 '끝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자양의 동기들과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을 땐 아직 외투가 필요하지 않던 가을의 끝자락이었는데 어느덧 두꺼운 코트 사이로도 추위가 파고들던 겨울, 그리고 봄을 지나 4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이 되기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도 흘렀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매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라는 시간을 사랑하는 동기들 및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름을 불러 인사하고 싶다며 첫날 사진과 이름이 적힌 종이를 쉬지 않고 바라보시던 선생님들을 보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칭찬해주시던, 혹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던 날이면 꼭 책을 챙겨주시던, 바뀐 머리 스타일을 가장 먼저 알아봐주셨던 선생님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학과 예술, 인문학을 넘나들며 동기들과 나눴던 세세한 이야기 모두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순간의 파편들이 제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꼭 필요한 어느 순간 버섯이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어 좋았고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훗날 교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22살의 제가 자양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선생님들께 받았던 만큼, 딱 그만큼 사랑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많은 것들 중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건 '같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또 많은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을 깎아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순위가 매겨지는 풍토에 익숙한 제게 남을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사실 허울 좋은 이야기 정도로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고 또 친구들을 보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당당히 그리고 따뜻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그 사람에게선 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양에서 토요일마다 수업을 들을 수는 없게 됐지만 여기서 배운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전전긍긍해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빛이 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양지은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